

사법감시

Justice Watch Newsletter Vol.28

로펌의 지배와 사법감시

퇴직 판·검사

영입으로 몸집 불린 로펌들

사법감시

28호

- 1 발간사
- 2 로펌(law firm)의 지배와 사법감시
- 4 16개 중대형 로펌과 퇴직 판·검사
 - 5 16개 중대형 로펌의 최근 5년간 퇴직 판·검사 영입 실태
 - 11 2006.10. 현재, 16개 중대형 로펌의 퇴직 판·검사 소속 현황
- 18 퇴직 판검사의 개업 현황
 - 19 2002.~2006.10. 퇴직 고위 법관 및 고위 검사의 현재 소속
 - 22 2004.9~2006.7 퇴직 판·검사 퇴직 후 개업지 분석
- 32 Review 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 제28호’를 발행하며



올 가을은 유난히 짧아 채 낙엽도 밟아보지 못 했음에도 벌써 날씨는 추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법개혁은 국회의 정쟁에 파묻혀 ‘어느 하세월’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법조비리와 법원·검찰의 주도권 다툼은 민주적 법치의 구현을 향한 국민적 열망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올 한 해 가득 연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과 문제들에 대하여 저희들은 온라인 방식의 「이슈리포트」를 발간하여 그때그때 긴급한 현안들을 정리·분석함으로써 시의성을 갖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사법감시’는 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정리와 분석·평가의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사법감시’ 제28호는 우리 사법체제의 개혁에 있어 중요한 분석대상이 되는 법률가집단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퇴직 판·검사들의 변호사개업동향을 중대형 로펌 및 개업지와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가집단은 판·검사의 경력을 거쳐 변호사가 되는, 외국에서는 유례가 드문 방식의 이동경로를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과정에서 소위 “재조법조”가 법률가집단의 중심축을 이루게 되는 관행이 구축되고, 더러 전관예우라든가 법조브로커와 같은 파행도 구조화되는 계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호는 우리 사법제도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가로지르는 기초자료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대형 로펌의 경우 소속 변호사들간의 분업과 협업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문화되고 유연성 혹은 집중성을 갖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퇴직 판·검사 등 전관의 영입에 지나친 비중을 둬으로써 보다 선진화된 법률서비스시장의 형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이 어긋나고 있다는 판단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법치의 정착과 더불어 로펌들의 사회적·법적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렇게 전관변호사에 의존하고자 하는 현실로부터 국가의 사법권력을 사유화하고자 하는 성향조차 읽을 수 있을 정도에 이릅니다.

퇴직 판·검사들의 개업지 현황은 전관예우를 둘러싼 세간의 우려를 더욱 강화합니다. 퇴직한 판·검사들은 거의 대부분 변호사로 개업하였으며, 그 중 판사는 92.1%, 검사는 71.7%가 퇴직 전 6개월 이내 근무하던 지역에서 개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는 법원과 검찰이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퇴직후 개업하기를 원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인사발령하였다는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차라리 전관예우의 관행이 제도적으로 배려되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법개혁의 본체는 법률가집단에 의하여 전유된 사법권력의 문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모니터링 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됩니다. 특히 로펌을 중심으로 점차 대형화, 사유화되고 있는 사법권력은 최우선적인 감시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법률가집단의 구성이나 동향에 관한 자료정리와 분석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한 상 희 사법감시센터 소장, 건국대 법학 교수

로펌(law firm)의 지배와 사법감시



이 국 운

한동대 법학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몇 년 전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갔을 때 동료교수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다. 할리우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뉴욕증권거래소 주변의 건물들이 온통 증권사와 로펌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었다. 9.11테러와 세계무역센터에 관한 추억담 속에 나온 가벼운 언급이었는데, 내게는 그 말이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비판법학자의 길을 다짐하는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잊었던 한 가지 화두가 눈앞에 떠올라 몹시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소장법학자라면 누구나 기억하겠지만, 한 때 우리는 모두 ‘법과 자본주의’에 관해서 말했었다. 마르크스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조차 사회 속의 법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그 경제적 토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렸었다. 속되게 표현해서, ‘돈’과의 관계를 분석하지 않는 한, ‘법’의 문제는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우리를 이끌던 전제이자 공감대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얘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 공론장의 주인행세를 하던 사회과학의 논객들이 헤게모니와 포스트모던과 시민사회를 떠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각 법학분과와 어색한 화해를 통해 체제법학과 공존을 모색했고, IMF시대 이후 세계화와 정보화의 혁명적 변화가 밀려든 뒤로는 그 변화에 적응하느라 숨 돌릴 틈이 없었다. 그러면서 ‘법과 자본주의’는 어느덧 잊혀진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비판법학자들이 외면했다고 해서, 법과 법률가집단이 경제적 토대에서 분리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상황은 오히려 정반대로 진행되었다. 정치시스템의 정점에 헌법재판소가 서게 된 것과 나란히 경제시스템의 운영에도 법과 법률가집단의 역할이 강력해져 갔던 것이다. 재벌그룹의 전횡에 맞서기 위해 시민운동가들이 소수주주권과 집단소송을 무기로 삼자, 그 재벌그룹이 엘리트 법률가들을 불러 모아 최강의 법무팀을 꾸렸던 것은 그 전형적인 예다.

한국 경제가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본주의체제에 전격적으로 편입된 이후 이런 흐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한복판에서 로펌이라는 새로운 영업형태가 빠른 속도로 법률가집단을 재편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률가집단 내부에서 로펌과 기업법률가들(corporate lawyers)은 이미 판검사집단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새로운 로열 클래스다. 잘 알려져 있듯이, 로펌은 20세기 후반 미국의 법률가집단이 개발해낸 특수한 영업형태로서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핵심기제다. 적어도 경제영역에서 법의 세계화는 로펌의 세계화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로펌의 성장은 법과 법률가의 자본화, 상품화를 경계하던 모더니티의 초기 기획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로펌의 기업법률가들은 더 이상 산업자본이나 금융자본에 고용 또는 예속되는 것보다 사법관료의 특권이나 법전문직의 긍지를 내세우던 ‘근대적’ 법률가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로펌 속에서 점점 더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은 단연 법률가가 아니라 자본이다. 이를 강조하여, 심지어 로펌은 법에 대한 자본의 우위가 관철되는 과정에서 잠시 거쳐 가는 과도기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견해도 있을 정도다. 오늘날 다국적 회계법인들이 기업법률가들을 고용하여 회계감사, 투자기획상담 등을 포함한 윈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나, 미국의 대표적인 로스쿨들이 앞 다투어 글로벌 로펌의 법률가 공급기지로 변신하고 있는 것은 자본이 법을 일방적으로 고용하는 새로운 시대의 불길한 전조들이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로펌의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근본원인은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편입된 과정에서 경제와 법 사이에 발생한 일종의 비대칭성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IMF 이후 한국의 자본시장은 활짝 열렸지만, 한국의 법률시장은 전혀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이 틈바구니에서 한국의 로펌들은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대외적 법률서비스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특혜’를 누려 왔다. 한국시장에 참입하는 글로벌 자본도 한국 로펌

을 고용하고, 이에 대항하는 국내지분도 한국 로펌을 고용하는 제도적 쌍방대리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론스타사건의 줄거리에 국내 최대의 로펌 이름이 늘 붙어 다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의 로펌들은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를 접합시키는 일종의 법적 접착제이자 연결고리였던 셈이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서 로펌의 영업방식은 결국 이와 같은 접착능력, 연결능력, 정치적 중매능력(the ability of political brokering)을 극대화하는 방향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두가 미국의 우수 로스쿨에 유학을 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경제부처의 전직 고위관료들을 재빨리 고문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수합병팀도 강화하고 국내송무팀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경제의 지배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또 이에 대한 저항으로 국내의 법률서비스시장을 지키려는 집착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한국의 로펌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절묘한 조건 속에 놓여 있다. 가히 꽃놀이패를 가졌다고나 할까?

지금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고위직 판검사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대한민국 로펌의 힘은 바로 이런 조건 속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법의 힘이 아니라 자본의 힘이다. ‘전관예우’가 강력한 국가적 자본이 사법과정에 드리운 폐습이라면, ‘로펌예우’(만약 이런 용어가 가능하다면)는 강력한 국가적 자본과 더 강력한 글로벌 자본의 틈바구니에서 사법과정에 피어난 악의 꽃인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퇴직한 고위직 판검사들의 이동경로를 로펌에 집중하여 추적하려는 것은 글로벌 자본과 한국 로펌의 물밀 연대가 대한민국의 법률가집단 내부에 구축하기 시작한 새로운 사법적 지배권력의 실체를 짚어보기 위함이다. 혹자의 주장처럼 이 물밀 연대가 ‘궁정 암투의 국제화’(the internationalization of palace wars)라는 거대한 제국주의적 프로젝트의 일환인지, 아니면 영미계 메가로펌의 패권에 맞서는 동아시아계 메가로펌의 탄생신화인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이 물밀 연대가 더욱 강력해질 것이며, 그 주도권이 법에서 자본으로 더욱 급격하게 넘어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 등에 관하여 긍정

이든 부정이든 지나치게 극단적인 태도를 고집하는 것은 경계할 만하다. 꽃놀이패를 가진 한국의 로펌들은 경우에 따라 미국법에 대항할 한국법의 경쟁력을 강조하기도 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법의 위용을 선전하기도 한다. 이 좌충우돌이 즉흥적이거나 정신분열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이끄는 이해관심은 단 한 가지일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대표하는 자본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 또는, 자신이 자본이라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이 초점을 명확히 한 뒤, 저들의 흔들림에 좌우되지 말고, 중심을 잡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한미 FTA에 의해서든, WTO와의 협상에 의해서든 대한민국의 법률서비스시장이 개방된다면, 그때 한국의 로펌들이 움직일 방향은 비교적 명백하다. 우선 개방이 되는 그날까지 종래의 독점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개방이 된 이후에는 영미 메가로펌들의 지역 브랜치로서 살아남을지, 아니면 이에 맞서는 국내 또는 동아시아계 로펌으로 버틸지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기준이 애국심이나 민족정신, 국가경쟁력의 차원에서 도출되리라는 기대는 아예 접는 것이 좋다. 단언컨대, 냉혹한 자본의 논리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영미 메가로펌들이 최초로 제시하는 인수합병의 가격이 고민의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글로벌 경제와 로펌의 지배라는 문제를 파고들수록 빈번하게 떠오르는 상념 한 가지를 토로하고자 한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요사이 시대를 잃고 쓸쓸하게 늙어가는 이미 지나버린 시대의 ‘근대적’ 법률가들에게 어떤 채무의식을 느끼고 있다. ‘전관예우’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로펌예우’에도 가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자본에도 권력에도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저 근대적 이상을 곱씹고 있는 그 법률가들 말이다. 이제 불쌍한 서민들이나 들락거릴 뿐인 그들의 외로운 사무실이 비판법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법과 자본주의의 잊혀진 이야기를 비판법학담론의 전면에 부활시키는 에너지 정도는 그로부터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이번 작업이 이 퇴락해가는 ‘법률가-선비’들의 호응을 받는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다. □

I 16개 중대형 로펌과 퇴직 판·검사



- 16개 중대형 로펌의 최근 5년간 퇴직 판·검사 영입 실태
- 2006.10. 현재, 16개 중대형 로펌의 퇴직 판·검사 소속 현황
- 16개 중대형 로펌 소속 퇴직 판·검사들의 월(月)보수 사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률가집단, 특히 로펌에 대한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중대형 로펌들의 퇴직 판·검사의 영입현황을 조사하기로 하였음.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가는 가운데, 법률가 집단을 통한 문제해결이 중요한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같은 흐름 속에서 1997년 IMF사태를 지나면서 대형 로펌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으며, 대형화, 기업화된 로펌도 늘어나는 추세임.

이같은 현상은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우리 사회의 주요 정책이나 사건의 향방을 정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법률자문이나 민형사 사건 대리·변호 과정에서 ‘로펌’이라는 집단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은, ‘로펌’에 대한 사회적 감시의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음. 앞서 수록된 이국운 교수의, “로펌의 지배와 사법감시”는 이같은 감시와 이번 조사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음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이번에 조사한 내용은

외국변호사를 제외한 국내변호사가 2006년 10월 현재 20명 이상 소속되어(고문, 대표, 구성원, 소속변호사 포함) 있는 중대형 로펌 16개를 대상으로하여

첫째, 16개 중대형 로펌의 지난 5년간(2001.7~2006.8) 퇴직 판·검사 영입 실태

둘째, 16개 중대형 로펌에 현재(2006.10) 소속되어 있는 퇴직 판·검사 현황

가. 조사대상

2006년 10월 현재, 변호사 20명 이상 중대형 16개 로펌

김앤장, 광장, 태평양, 화우, 세종, 율촌, 바른, 충정, KCL, 서정, 로고스, 지평, 대륙, 한결, 지성, 정평 - 변호사 숫자 순서

* ‘대표 변호사’, ‘고문 변호사’, ‘구성원 변호사’, ‘소속 변호사’ 전체 숫자가 20명 이상(외국 변호사 제외)

나. 자료출처

- 2001.8~2006.9 자 “인권과 정의”(대한변협 발행) 법무법인 구성원 변경공고
- 각 로펌의 웹사이트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명부(2006년)
- 법원행정처, 법무부 제공 2000년 이후 퇴직 판·검사 명단(정보공개청구)
- 대한변협 웹사이트, 로앤비(www.lawnb.com) 등



16개 중대형 로펌의 최근 5년간 퇴직 판·검사 영입 실태

1-1. 중대형 로펌이 최근 5년간 영입한 퇴직 판·검사 기본현황

- 총 161명
- 퇴직한 지 4년 이후 영입된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퇴직 판·검사'라는 성격이 탈색된 경우로 보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따라서 퇴직 3년 이내에 중대형 로펌에 영입된 이들만 조사결과에 포함됨

구 분	퇴직 전 직급	인원 수(명)
법관 출신 (98명, 60.9%)	대법관급 이상	8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소장/재판관, 법원행정처장
	법원장급	12 지방법원장,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5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31 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지원장
	판사급	42 판사, 재판연구원, 헌법연구원
검사 출신 (63명, 39.1%)	검사장급 이상	13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국장/감찰관/실장, 법무연수원장/기획부장, 대검 차장/부장, 고검장/차장, 지검장
	고등검사급	25 대검 과장/연구관/기획관,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부장/부부장, 지청장/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부 과장/검사, 법무연수원 교수/연구위원/기획과장
	일반검사급	25

- 지난 5년간 중대형 로펌이 영입한 퇴직 3년 이내의 판·검사들중 절대 다수가 퇴직 후 곧바로 로펌에 영입됨

퇴직 시기와 영입 시기 간격	인원 수(명)	비 중
0~3개월	142명	88.2%
7~12개월	4명	2.5%
1~2년	8명	5.0%
2~3년	7명	4.3%
합계	161명	100%

1-2. 5년간 연도별 영입 실태

- ▶ 중대형 로펌들의 퇴직 판·검사 영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 ▶ 퇴직 판·검사를 실제 영입한 로펌 1개 평균별 영입숫자가 2004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5년 이후 대폭 증가함. 실제 영입된 전체 퇴직 판검사의 수도 2004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05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하였음

	'01(7월~)	'02	'03	'04	'05	'06(~8월)	연 평균
법관 출신(명)	6	17	9	9	24	33	16.33
검사 출신(명)	5	5	11	7	20	15	10.50
합 계(명)	11	22	20	16	44	48	26.83
비 율(%)	6.83%	13.66%	12.42%	9.94%	27.33%	29.81%	
1명 이상 영입한 로펌(개)	7개	10개	9개	8개	13개	11개	
영입 로펌 평균 영입자 수(명)	1.6	2.3	2.3	2.0	3.5	4.4	

1-3. 로펌별 퇴직 판·검사 영입현황

- ▶ 지난 5년간 김앤장(32명), 바른(17명), 화우(17명), 로고스(16명), 광장(15명) 등이 다수의 전관들을 영입했음
- ▶ 김앤장은 2005년 이전에도 꾸준히 영입을 해왔지만, 2005년 이후 더욱 늘었음. 로고스와 화우, KCL의 경우도 2005년 이후 많은 수의 퇴직 판·검사를 영입하였으며, 바른의 경우 2002년 이후 매년 2~3명 이상의 전관을 영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정평과 지성은 지난 5년간 퇴직 3년 이내의 판·검사를 한 명도 영입하지 않았음.

	김앤장	광장	태평양	화우	세종	울촌	바른	충정	KCL	서정	로고스	지평	대륙	한결	지성	정평	합계
'01(7월~)	1	3	1	2	-	-	-	-	1	1	-	-	2	-	-	-	11
'02	3	6	2	-	2	1	3	3	-	-	1	-	1	-	-	-	22
'03	4	-	3	1	4	2	2	1	-	1	2	-	-	-	-	-	20
'04	4	-	1	2	-	-	3	3	1	-	1	-	1	-	-	-	16
'05	10	3	2	5	2	5	3	-	5	-	5	1	2	1	-	-	44
'06(~8월)	10	3	4	7	-	2	6	2	4	-	7	1	2	-	-	-	48
합 계	32	15	13	17	8	10	17	9	11	2	16	2	8	1	0	0	161

1-4. 5년간 로펌별 영입 퇴직 판·검사의 직급

- ▶ 고법부장급 이상 고위 법관을 다수 영입한 곳 - 바른(총 7명 / 대법관급 이상 2, 법원장급 3, 고법부장급 2), 화우(총 5명 / 대법관급 이상 1, 법원장급 2, 고법부장급 2)
- ▶ 지난 5년간 '김앤장'은 법관 출신 퇴직자를 18명 영입했지만, 고법부장급 이상 고위 법관은 한 명도 영입하지 않은 반면, 판사급은 13명, 지법부장급 5명을 영입하여 뚜렷한 차별을 보임
검사급 영입에서도 '김앤장'은 다른 법무법인에 비해,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출신보다는 일반검사급 출신자의 영입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직 급	김앤장	광장	태평양	화우	세종	울촌	바른	충정	KCL	서정	로고스	지평	대륙	한결	지성	정평	합계
법관출신	대법관급 이상	-	1	1	1	1	2	-	1	-	1	-	-	-	-	-	8
	법원장급	-	1	2	2	1	3	1	-	-	1	-	-	-	-	-	12
	고법부장급	-	-	-	2	-	2	-	1	-	-	-	-	-	-	-	5
	지법부장급	5	1	-	4	-	4	3	4	-	5	1	1	-	-	-	31
	판사 급	13	10	3	3	1	4	2	1	-	2	1	2	0	0	-	42
소 계		18	13	6	12	3	9	12	5	6	9	2	3	0	0	0	98
검사출신	검사장급 이상	2	-	2	-	2	1	1	1	1	2	-	1	-	-	-	13
	고등검사급	6	1	1	4	-	2	2	4	-	3	-	1	1	-	-	27
	일반검사급	6	1	4	1	3	2	1	-	1	2	-	3	-	-	-	26
소 계		14	2	7	5	5	5	4	5	2	7	0	5	1	0	0	63
합 계		32	15	13	17	8	10	17	9	11	2	16	2	8	1	0	161

자료 1. 16개 중대형 로펌의 최근 5년간(01.7~06.8) 영입 퇴직 판검사 현황

법무법인	구 분	직 급	이 름	최종 근무처 및 직위	영입일	퇴직일
김앤장	판사	지법부장	백창훈	사법연수원 교수	020219	020218
		지법부장	박순성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050224	050221
		지법부장	정병문	수원지법 부장판사	060216	060213
		지법부장	홍석범	사법연수원 교수	060216	060213
		지법부장	김상근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060222	060220
		판사	노경식	서울지법 판사	020218	020208
		판사	이백규	서울고법 판사	030304	030219
		판사	정교화	서울행정법원 판사	030402	030212
		판사	권오창	서울고법 판사	040217	040210
		판사	유용호	서울행정법원 판사	040217	040211
		판사	이옥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050221	050221
		판사	박철희	서울북부지원 판사	050224	050214
		판사	강현중	서울지법 판사	050303	050221
		판사	이철원	서울남부지법 판사	060222	060213
		판사	김경호	서울중앙지법 판사	060224	060220
		판사	김삼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060224	060213
		판사	박정삼	서울중앙지법 판사	060224	060220
		판사	이상우	서울북부지법 판사	060224	060220
	검사	검사장급 이상	김희선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050407	050404
		검사장급 이상	이정수	대검 차장	0504	050401
		고등검사급	이종왕	대검 수사기획관	011010	200005
		고등검사급	장용석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030306	030227
		고등검사급	오세현	서울지검 부장검사	040628	040614
		고등검사급	최찬묵	서울지검 부장검사	040628	040614
		고등검사급	이성규	부산고검 검사	050323	050315
		고등검사급	신현수	대검 과장검사	051026	040302
		검사급	조준형	인천지검 검사	020222	020218
		검사급	한명섭	법무부 특수법령과검사	030306	030227
		검사급	김봉주	서울중앙지검 검사	050430	050425
		검사급	구태언	대전지검 검사	051223	051214
		검사급	최관수	서울중앙지검 검사	060104	051223
		검사급	임재동	서울동부지검 검사	060309	060220
광장	판사	대법관급 이상	이규홍	대법관	060808	060711
		법원장급	김인수	서울행정법원장	050303	050214
		지법부장	고원석	사법연수원 교수	050303	050221
		판사	김진규	대전지법 판사	010724	199807
		판사	강인상	수원지법 판사	010903	010816
		판사	김선태	서산지원 판사	010903	010816
		판사	김경태	대전지법 판사	020320	020218
		판사	김대희	서울지법 판사	020320	020218
		판사	김득현	서울지법 판사	020320	020218
		판사	노소라	서울동부지원 판사	020320	020208
		판사	이완식	서울남부지원 판사	020320	020218
		판사	한진수	서산지원 판사	021023	020817
		판사	곽내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050317	050221

광장	검사	고등검사급	서창희	서울고검 검사	0606.02	0604.28
		검사급	배병창	부산지청 검사	0601.10	05.12.31
태평양	판사	대법관급 이상	송진훈	대법관	0303.11	0302.12
		법원장급	오세립	서울서부지법원장	0502.16	0502.03
		법원장급	정호영	서울고법원장	0607.11	0606.21
		판사	오금석	대법원 재판연구관	0402.26	0402.11
		판사	노영보	서울고법 부장판사	0602.22	0602.07
		판사	강동욱	서울고등법원 판사	0605.04	0602.13
	검사	검사장급 이상	김영철	법무연수원장	0201.28	0201.22
		검사장급 이상	박종렬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0504.20	0504.04
		고등검사급	이승섭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0605.04	0602.20
		검사급	박정호	성남지청 검사	0108.25	0108.13
		검사급	윤석열	부산지검 검사	0201.22	2002
		검사급	권민용	수원지검 검사	0303.11	0302.27
화우	판사	검사급	김선철	서울북부지청 검사	0303.11	0302.27
		대법관급 이상	변재승	법원행정처장	0504.25	0502.27
		법원장급	박영무	사법연수원장	0302.19	0302.11
		법원장급	변동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0511.24	0511.04
		고법부장	정덕홍	서울고법 부장판사	0109.06	0108.16
		고법부장	조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0402.12	0402.10
		지법부장	손태호	서울지법 부장판사	0402.26	0402.18
		지법부장	김만오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0603.02	0602.20
		지법부장	양호승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0603.02	0602.20
		지법부장	채동현	사법연수원 교수	0603.02	0602.13
		판사	곽동우	서울고법 판사	0503.17	0502.14
		판사	이선애	헌법연구관	0603.02	0602.17
		판사	전종민	서울행정법원 판사	0603.02	0602.20
	검사	고등검사급	인재영	서울고검 검사	0107.09	0106.14
		고등검사급	전창영	부산고검 검사	0505.06	0504.18
		고등검사급	이훈훈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0512.30	0502.28
		고등검사급	공성국	수원지검 1차장검사	0603.29	0603.23
		검사급	이병수	제주지검 검사	0607.27	0607.07
세종	판사	대법관급 이상	서 성	대법관	0310.08	0309.12
		법원장급	이근웅	사법연수원장	0502.15	0502.05
		판사	임준호	대법원 재판연구관	0203.09	0202.08
	검사	검사장급 이상	김경한	서울고검 검사장	0203.09	0201.22
		검사장급 이상	유창종	대검 부장	0305.09	0304.25
		검사급	이동건	서울지검 검사	0307.05	0305.21
		검사급	김동주	강릉지청 검사	0310.06	0308.27
울촌	판사	검사급	박 혁	창원지검 검사	0503.16	0502.21
		법원장급	김대환	서울고등법원장	0203.04	0202.02
		지법부장	윤홍근	사법연수원 교수	0304.10	0302.12
		지법부장	유영일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0502.15	0402.18
		지법부장	이상인	인천지법 부장판사	0502.16	0502.14
		지법부장	강동세	인천지법 부장판사	0511.16	0302.12
		판사	홍대식	서울지법 판사	0303.25	0302.12

울촌	판사	판사	이선희	대법원 재판연구관	050223	050214
		판사	오정환	의정부지법 판사	0603,20	0602,20
		판사	이완수	서울동부지법 판사	0603,20	0602,13
	검사	검사급	염용표	수원지검 검사	050225	050221
바른	판사	대법관급 이상	최종영	대법원장	0604,13	0509,25
		대법관급 이상	박재윤	대법관	0608,11	0607,11
		법원장급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	050223	050211
		법원장급	홍일표	사법연수원장	2004,4	040207
		법원장급	이영애	춘천지방법원장	0603,17	0408,12
		고법부장	김치중	서울고법 부장판사	050215	050205
		고법부장	정인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2004,3	040210
		지법부장	이건웅	인천지법 부장판사	2002	0108,16
		지법부장	이충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060223	0602,20
		지법부장	주경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060223	0602,20
		판사	나경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0210,07	0209,23
		판사	김관중	서울고법 판사	060220	0602,13
	검사	검사장급 이상	명로승	법무부차관	0303,19	0303,13
		고등검사급	정장현	서울동부지청 부부장검사	020404	0103,31
		고등검사급	임만식	서울고검 검사	0508,19	0508,12
		검사급	김용철	서울동부지청 검사	0309,26	0202,18
		검사급	한중석	창원지검 검사	040217	040225
충정	판사	법원장급	신명균	사법연수원장	020226	020207
		지법부장	송정훈	서울지법 부장판사	020220	0202,18
		지법부장	하광호	서울지법 부장판사	020220	0202,18
		지법부장	조용연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0303,17	0302,19
		판사	한창호	서울고법 판사	040226	0402,18
	검사	검사장급 이상	김진환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040109	0312,31
		고등검사급	백영기	인천지검 부장검사	0603,30	0602,20
		고등검사급	손창열	서울고검 검사	0603,30	0602,28
		검사급	태지영	서산지청 검사	2004,8	0408,16
KCL	판사	대법관급 이상	유지담	대법관	0511,21	0510,11
		고법부장	이형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0504,15	050205
		지법부장	김용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0108,31	0108,16
		지법부장	박종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0603,10	0602,20
		지법부장	김희태	성남지원장	0603,10	0602,20
		지법부장	최동식	부천지원장	0603,10	0602,20
	검사	검사장급 이상	고영주	대검 부장	060221	0601,31
		고등검사급	신언용	서울고검 검사	040701	0406,29
		고등검사급	정동욱	서울고검 검사	050727	0304,09
		고등검사급	신건수	서울고검 부장검사	050727	0406,29
		고등검사급	함귀용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0508,17	050728
서정	검사	검사장급 이상	김대웅	광주고검장	030708	0303,10
		검사급	이은태	서울지검 검사	0107,24	010625
로고스	판사	대법관급 이상	이용우	대법관	0512,22	0510,11
		법원장급	강완구	서울고등법원장	0511,21	0511,04
		지법부장	양승국	수원지법 부장판사	030226	0302,19

로고스	판사	지법부장	문홍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040226	040214
		지법부장	박동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0603.02	0602.20
		지법부장	최중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0603.02	0602.20
		지법부장	정일성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0603.02	0602.20
		판사	전문수	서울지법 판사	0210.08	2000
		판사	김무겸	서울고등법원 판사	0603.02	0602.13
	검사	검사장급 이상	김승규	부산고검 검사장	0303.28	0303.10
		검사장급 이상	황선태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0504.22	0504.04
		고등검사급	손진영	서울고검 부장검사	0504.22	0504.18
		고등검사급	곽무근	서울고검 검사	0603.02	0602.20
		고등검사급	김 용	서울고검 검사	0606.27	0606.14
		검사급	강수진	홍성지청 검사	0509.13	0401.20
지평	판사	판사	이동간	의정부지검 검사	0607.28	0606.28
		지법부장	이홍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0603.03	0602.20
대륙	판사	판사	임지아	대구지법 판사	0504.07	0502.21
		지법부장	김기동	서울지법 부장판사	0506.16	0302.19
		판사	장희천	서울고법 판사	0111.14	0108.16
	검사	판사	조남대	서울지법 판사	0204.15	0202.08
		검사장급 이상	정진규	법무연수원장	0504.28	0504.04
		고등검사급	최정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0605.12	0604.14
		검사급	정성원	서울서부지청 검사	0109.19	0102.19
		검사급	윤덕근	목포지청 검사	0404.08	0302.27
		검사급	전훈일	청주지청 검사	0604.11	0308.27
		검사급	오영상	경주지청 부장검사	0502.28	0305.31
한결	검사	고등검사급	오영상	경주지청 부장검사	0502.28	0305.31





2006.10. 현재, 16개 중대형 로펌의 퇴직 판·검사 소속 현황

2-1. 2006년 10월 현재, 16개 중대형 로펌 소속 퇴직 판·검사 기본현황

- 총 347명의 퇴직 판·검사가 16개 중대형 로펌에 소속되어 있음(고문, 대표 등 로펌에서의 지위 구분없음)
- 퇴직 판사 239명(68.9%)
- 퇴직 검사 108명(31.1%)

구 분	직 급	인원수(명)
법관 출신	대법관급 이상	17
	법원장급	22
	고법부장급	12
	지법부장급	57
	판사급	131
소계(명, %)		239(68.9%)
검사 출신	검사장급 이상	28
	고등검사급	28
	검사급	52
소계(명, %)		108(31.1%)
합계(명, %)		347(100%)

2-2. 퇴직 판검사들의 중대형 로펌 근무 연차 현황

- 영입시점 미확인자 3명 제외 총 344명중

로펌근무 연차(소속 연도)	퇴직판검사 수(명)	비 율	비 고
1년차(2006년)	56	16.3%	112명(32.6%)
2년차(2005년)	56	16.3%	
3년차(2004년)	22	6.4%	
4년차(2003년)	19	5.5%	66명(19.2%)
5년차(2002년)	25	7.3%	
6년차(2001년)	36	10.5%	
7년차(2000년)	35	10.2%	112명(32.6%)
8년차(1999년)	41	11.9%	
9년차(1998년)	21	6.1%	
10년차(1997년)	5	1.5%	54명(15.7%)
11년차이상(1997년 이전)	28	8.1%	
계	344(명)	100%	100%

- 이는 2005년~2006년 사이, 1999~2001년 사이에 로펌들이 규모를 대형화하면서 대규모로 퇴직 판·검사들을 영입한 것을 보여줌

2-3. 현재 소속중인 퇴직 판·검사들이 퇴직 후 로펌에 영입(소속)되기까지의 기간

- 로펌 소속 시점 또는 퇴직 시점 미확인자 14명 제외 총 333명중 퇴직 후 1년 이내에 중대형 로펌에 소속된 자 → 249명(74.8%)
- 특히 법관 또는 검사로 재직중에 퇴직 후 소속될 로펌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로서 퇴직 후 0~3개월 이내에 중대형 로펌에 소속된 자가 전체 대비 62.8%를 차지하고 있음
- 0~3개월 이내 중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퇴직 판검사 비율 : 최근 5년 사이 대폭 증가
2000. 12. 이전에 로펌 소속된 자 중 0~3개월 이내 소속된 자 : 46.7%
2001. 1. 이후에 로펌 소속된 자 중 0~3개월 이내 소속된 자 : 72.0%
즉, 2001년 이후부터는 퇴직 후 곧바로 중대형 로펌에 영입되는 판·검사의 비중이 그 이전에 비해 대폭 (25.3%p) 늘었음

구 분	0~3개월	4~12개월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 이상	합 계
2000.12. 이전 소속자	57(명)	26(명)	9(명)	7(명)	14(명)	9(명)	122
소계 비율	46.7%	21.3%	7.4%	5.7%	11.5%	7.4%	
2001. 1. 이후 소속자	152(명)	14(명)	18(명)	16(명)	7(명)	4(명)	211
소계 비율	72.0%	6.6%	8.5%	7.6%	3.3%	1.9%	
합계(비율)	209명(62.8%)	40명(12.0%)	27명(8.1%)	23명(6.9%)	21명(6.3%)	13명(3.9%)	333

2-4. 16개 중대형 로펌별 소속 퇴직 판·검사 현황

- 영입시점 미확인자 3명 제외 총 344명중

각 로펌별 소속 퇴직 판·검사 수(명)			각 로펌별 소속 변호사 대비 소속 퇴직 판·검사 비율				
순 서(인원수)	로펌명	소속 퇴직 판·검사(명)	순 서(비율순)	로펌명	비율	소속 퇴직 판·검사(명)	각 로펌별 전체 변호사(명)
1	김앤장	79	1	로고스	55.8%	24	43
2	화 우	45	2	바 른	46.6%	34	73
3	태평양	34	3	화 우	35.4%	45	127
4	바 른	34	4	K C L	34.0%	17	50
5	광 장	30	5	김앤장	31.1%	79	254
6	로고스	24	6	대 른	29.0%	9	31
7	세 종	23	7	충 정	25.5%	13	51
8	울 촌	20	8	태평양	24.1%	34	141
9	K C L	17	9	울 촌	23.8%	20	84
10	충 정	13	10	서 정	22.9%	11	48
11	서 정	11	11	세 종	19.3%	23	119
12	대 른	9	12	광 장	16.9%	30	178
13	지 평	3	13	지 성	10.7%	3	28
14	지 성	3	14	지 평	7.3%	3	41
15	한 결	2	15	한 결	6.9%	2	29
16	정 평	0	16	정 평	0%	0	20
합 계		347		계	26.3%	347	1,317

직 급	김안장	광장	태평양	화우	세종	울촌	바른	충정	KCL	서정	로고스	지평	대륙	한결	지성	정평	합계
법관출신	대법관급 이상	1	2	2	3	1	2	-	1	1	1	-	1	-	-	-	17
	법원장급	-	2	4	5	1	1	4	1	1	2	-	-	-	-	-	22
	고법부장급	-	1	2	1	3	-	4	-	1	-	-	-	-	-	-	12
	지법부장급	9	5	6	10	1	5	3	5	5	-	4	1	3	-	-	57
	판사급	48	11	7	18	8	7	14	2	2	3	5	2	1	1	2	131
소 계		58	21	21	37	14	15	27	8	10	5	12	3	5	1	2	239
검사출신	검사장급 이상	4	1	6	1	4	-	1	2	3	2	3	-	1	-	-	28
	고등검사급	8	1	1	3	-	1	1	2	4	1	4	-	1	1	-	28
	일반검사급	9	7	6	4	5	4	5	1	-	3	5	-	2	-	1	52
	소 계	21	9	13	8	9	5	7	5	7	6	12	0	4	1	1	108
합 계		79	30	34	45	23	20	34	13	17	11	24	3	9	2	3	347

2-5. 중대형 로펌의 퇴직 판·검사의 월 보수 지급 실태

- 중대형 로펌의 퇴직 판·검사 대우 실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고된 월소득액(2006년도 신고분)이 5천만원 이상 해당하는 사례중 로펌 근무기간이 6년 이하인 29여명의 사례를 조사하였음
- 퇴직 전 직급 수준과 영입된 로펌별, 그리고 해당 로펌 근무기간별 또는 성과별로 차이가 존재함
- 로펌에 들어간 지 1년 이내의 고법부장판사급에 대해 중대형 로펌들은 월 7천만원 내지 월 9천만원을 보수로 지급한 사례가 있음. 로펌에 들어간 지 1년 이내의 검사장급에 대해서도 몇몇 중대형 로펌들은 월 8천만원에서 월 1억원 정도를 보수로 지급함

이름	직 급	소 속	월보수액(원)	퇴직년도	영입년도	해당로펌 근무기간	이름	직 급	소 속	월보수액(원)	퇴직년도	영입년도	해당로펌 근무기간
A	대법관급	화우	80,047,330	2005	2005	1년	P	판사급	김안장	81,660,000	2000	2000	6년
B	대법관급	김안장	88,349,730	2000	2000	6년	Q	판사급	김안장	53,009,830	2000	2000	6년
C	고법원장급	바른	95,190,000	2005	2005	1년	R	판사급	김안장	53,009,830	2000	2000	6년
D	지법원장급	화우	69,113,270	2005	2005	1년	S	판사급	김안장	53,009,830	2003	2003	3년
E	고법부장급	바른	72,563,630	2005	2005	1년	T	판사급	김안장	53,973,650	2004	2004	2년
F	지법부장급	울촌	54,261,870	2000	2000	6년	U	판사급	김안장	81,660,000	2005	2005	1년
G	지법부장급	화우	67,654,420	2000	2000	6년	V	판사급	김안장	81,660,000	2001	2001	5년
H	지법부장급	화우	50,365,990	2004	2004	2년	W	검사장급	세종	86,616,660	2003	2003	3년
I	지법부장급	화우	51,057,880	2001	2001	5년	X	검사장급	김안장	98,523,330	2005	2005	1년
J	지법부장급	바른	50,000,000	2006	2006	1년이하	Y	검사장급	김안장	107,212,880	2005	2005	1년
K	지법부장급	광장	58,152,100	2000	2000	6년	Z	검사장급	로고스	88,788,880	2005	2005	1년
L	지법부장급	광장	50,000,000	2005	2005	1년	Aa	고등검사급	태평양	52,770,000	2006	2006	1년이하
M	지법부장급	김안장	89,956,090	2000	2000	6년	Bb	고등검사급	KCL	64,000,000	2005	2005	1년
N	지법부장급	KCL	54,723,330	2001	2001	5년	Cc	고등검사급	김안장	106,019,670	2004	2005	1년
O	지법부장급	김안장	192,763,050	2002	2002	4년							

자료 2. 2006. 10. 현재, 16개 중대형 로펌 소속 퇴직 판·검사

로펌명	직 급	이 름	최종직책	로펌명	직 급	이 름	최종직책
김앤장	검사급	구태언	대전지검 검사	김앤장	판사급	박영훈	서울지법 판사
	검사급	박성수	서울서부지청 검사		판사급	박은영	서울서부지원 판사
	검사급	박태식	인천지검 검사		판사급	박익수	의정부지원 판사
	검사급	이승호	부산지검 검사		판사급	박정삼	서울중앙지법 판사
	검사급	임재동	서울동부지검 검사		판사급	박종욱	의정부지원 판사
	검사급	조준형	인천지검 검사		판사급	박철희	서울북부지원 판사
	검사급	최관수	서울중앙지검 검사		판사급	백제홍	서울지법 판사
	검사급	최성우	서울서부지청 부부장검사		판사급	변동열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검사급	허용행	대구지검 검사		판사급	서정걸	서울지법 판사
	검사장급 이상	김희선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판사급	성창익	서울남부지원 판사
	검사장급 이상	윤동민	대검 보호국장		판사급	신필종	서울지법 판사
	검사장급 이상	이정수	대검 차장		판사급	오관석	서울고법 판사
	검사장급 이상	최경원	법무부 차관		판사급	오동석	수원지법 판사
	고등검사급	김종국	청주지검 부장검사		판사급	유용호	서울행정법원 판사
	고등검사급	박정규	서울동부지청 부장검사		판사급	윤병철	서울지법 판사
	고등검사급	오세현	서울지검 부장검사		판사급	윤치삼	서울지법 판사
	고등검사급	유국현	대구고검 검사		판사급	이능규	서울지법 판사
	고등검사급	이상규	부산고검 검사		판사급	이백규	서울고법 판사
	고등검사급	조웅천	수원지검 부장검사		판사급	이상우	서울북부지법 판사
	고등검사급	최찬복	서울지검 부장검사		판사급	이옥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고등검사급	현홍주	서울고검 검사		판사급	이재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관급	이임수	대법관		판사급	이준호	서울북부지원 판사
	지법부장급	최정수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판사급	이지수	충주지원 판사
	지법부장급	김상근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판사급	이철원	서울남부지법 판사
	지법부장급	박순성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판사급	이현철	서울지법 판사
	지법부장급	백창훈	지법 부장판사		판사급	장수길	서울지법 판사
	지법부장급	정병문	수원지법 부장판사		판사급	전명호	서울남부지원 판사
	지법부장급	주한일	청주지법 부장판사		판사급	정교화	서울행정법원 판사
	지법부장급	한상호	수원지법 부장판사		판사급	정명재	서울북부지원 판사
	지법부장급	홍석범	사법연수원 교수		판사급	정여순	서울지법 판사
	지법부장급	황정근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급	정종철	서울지법 판사
	판사급	강상진	서울지법 판사		판사급	차선희	서울지법 판사
	판사급	강현중	서울지법 판사		판사급	허영범	서울북부지원 판사
	판사급	권오창	서울고법 판사		판사급	홍용호	서울지법 판사
	판사급	권은민	서울행정법원 판사	광장	검사급	김인권	서울지검 검사
	판사급	김경호	서울중앙지법 판사		검사급	방 현	서울지검 검사
	판사급	김봉주	서울중앙지검 검사		검사급	배병창	부천지청 검사
	판사급	김삼범	서울북부지법 판사		검사급	유국렬	서울지검 검사
	판사급	김성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검사급	최명석	서울지검 동부지청 부부장검사
	판사급	김진욱	서울지법 판사		검사급	추원식	경주지청 검사
	판사급	김진환	서울지법 판사		검사급	한승헌	서울지검 검사
	판사급	김철만	서울지법 판사		검사장급 이상	공영규	부산고검 검사장
	판사급	김형두	서울지법 판사		고등검사급	서창희	서울고검 검사
	판사급	노경식	서울지법 판사		고법부장	서정우	서울고법 부장판사
	판사급	박성하	홍성지원 판사		대법관급	박준서	대법관

광장	대법관급	이규홍	대법관	태평양	판사급	오금석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장급	김인수	서울행정법원장		판사급	김지현	대전지법 판사
	법원장급	권광중	사법연수원장		판사급	문강배	서울고법 판사
	지법부장급	고원석	사법연수원 교수		판사급	이 준	서울고법 판사
	지법부장급	곽현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판사급	이규호	서울중앙지법 판사
	지법부장급	김택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판사급	정상철	서울지법 판사
	지법부장급	유경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검사급	강호순	충주지청 검사
	지법부장급	정은환	서울지법 부장판사		검사급	엄재민	인천지검 검사
	판사급	강인상	수원지법 판사		검사급	이봉상	서울지검 검사
	판사급	김경태	대전지법 판사		검사급	전창영	부산고검 검사
	판사급	김병재	서울고법 판사		검사장급 이상	김병학	대전지검장
	판사급	김선태	서산지원 판사		고등검사급	공성국	수원지검 처장검사
	판사급	김진규	대전지법 판사		고등검사급	안재영	서울고검 검사
	판사급	노소라	서울동부지원 판사		고등검사급	이홍훈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판사급	안홍준	서울지법 판사		고법부장급	정덕홍	서울고법 부장판사
	판사급	이완식	서울남부지원 판사		대법관급	윤 관	대법원장
	판사급	이태희	서울지법 판사		대법관급	변재승	법원행정처장
	판사급	임호준	대구지법 판사		대법관급	천경송	대법관
	판사급	한진수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		법원장급	박영무	사법연수원장
태평양	검사급	권민용	수원지검 검사	화우	법원장급	변동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검사급	김선철	서울북부지청 검사		법원장급	이병수	서울고법원장
	검사급	김재영	강릉지청 검사		법원장급	양삼승	대법원장 비서실장
	검사급	류광현	부산지검 검사		법원장급	최공웅	특허법원장
	검사급	박정호	성남지청 검사		지법부장급	김건홍	서울지법 부장판사
	검사급	이정훈	수원지청 검사		지법부장급	김만오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검사장급 이상	강원일	인천지검 검사장		지법부장급	김용주	서울지법 부장판사
	검사장급 이상	박종렬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지법부장급	김태훈	서울지법 부장판사
	검사장급 이상	배명인	법무부장관		지법부장급	노경래	서울지법 부장판사
	검사장급 이상	이명재	대검 검찰총장		지법부장급	백현기	서울지법 부장판사
	고검장급	이명재	서울고검장		지법부장급	손태호	서울지법 부장판사
	고검장급	김영철	법무연수원장		지법부장급	양호승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고등검사급	이승섭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지법부장급	유인외	서울동부지원 부장판사
	고법부장급	이종욱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법부장급	임승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고법부장급	노영보	서울고법 부장판사		판사급	오남성	춘천지법 판사
	대법관급	민복기	대법원장		판사급	황상현	서울북부지원 판사
	대법관급	송진훈	대법관		판사급	곽동우	서울고법 판사
	법원장급	가재환	사법연수원장		판사급	김남근	서울지법 판사
	법원장급	강봉수	서울지법원장		판사급	김성식	공주지원 판사
	법원장급	정호영	서울고법원장		판사급	김진억	서울지법 판사
	법원장급	오세립	서울서부지법원장		판사급	박현순	서울고법 판사
	지법부장급	강용현	서울지법 부장판사		판사급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지법부장급	곽경직	인천지법 부장판사		판사급	이성복	서울고법 판사
	지법부장급	곽태철	천안지원 부장판사		판사급	이재기	광주지법 판사
	지법부장급	김인섭	서울지법 부장판사		판사급	이주성	서울지법 판사
	지법부장급	나천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판사급	전오영	서울북부지원 판사
	지법부장급	송동원	서울지법 부장판사		판사급	전종민	서울행정법원 판사
	판사급	강동욱	서울고등법원 판사		판사급	차정일	서울지검 부장검사

화우	판사급	채동현	사법연수원 교수		검사급	정정현	서울동부지청 부부장검사
	판사급	강보현	서울고법 판사		검사급	권영세	서울지검 조사부 부부장검사
	판사급	한상구	서울지법 판사		검사급	김용철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판사급	김원일	인천지법 판사		검사급	김찬진	서울지검 검사
세종	검사급	이동건	서울지검 검사	바른	검사급	한중석	창원지검 검사
	검사급	박 혁	창원지검 검사		검사장급 이상	명로승	법무부차관
	검사급	윤연수	서울지검 검사		고등검사급	임안식	서울고검 검사
	검사급	조 춘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고법부장	김치중	서울고법 부장판사
	검사급	이용성	부산지검 검사		고법부장	박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검사장급 이상	이종남	법무부 장관		고법부장	정인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검사장급 이상	유창종	대검 부장		고법부장	조중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검사장급 이상	임내현	법무연수원장		대법관급	박재윤	대법관
	고검장급	김강한	서울고검 검사장		대법관급	최종영	대법원장
	고법부장급	이범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장급	강병섭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고법부장급	황상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장급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
	고법부장급	이건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장급	홍일표	사법연수원장
	대법관급	서 성	대법관		법원장급	이영애	춘천지방법원장
	법원장급	이근웅	사법연수원장		지법부장	이건웅	인천지법 부장판사
	지법부장급	하철용	서울지법 부장판사		지법부장	이충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판사급	임준호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법부장	주경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판사급	김범수	서울가정법원 판사		판사급	김관중	서울고법 판사
	판사급	강신섭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급	서규영	전주지법 판사
	판사급	김진국	인천지법 판사		판사급	신종교	서울지법 판사
	판사급	오성환	대법원 판사		판사급	오승종	서울지법 판사
	판사급	임병일	광주지법 판사		판사급	이경섭	서울지법 판사
	판사급	한병희	서울가정법원 판사		판사급	임영철	서울고법 판사
	판사급	신영무	홍성지원 판사		판사급	정기돈	서울행정법원 판사
울촌	검사급	김도형	대구지검 검사	충정	판사급	최경준	서울지법 판사
	검사급	염용표	수원지검 검사		판사급	최영로	수원지법 판사
	검사급	윤세리	부산지검 검사		판사급	최혜리	서울가정법원 판사
	검사급	송인보	창원지검 부장검사		판사급	홍지욱	서울남부지원 판사
	고등검사급	박광빈	대검 과장검사		판사급	강 훈	서울고법 판사
	대법관급	신성택	대법관		판사급	김의재	서울지법 판사
	대법관급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판사급	김재호	서울가정법원 판사
	법원장급	김대환	서울고등법원장		검사급	태지영	사산지청 검사
	지법부장급	강동세	인천지법 부장판사		검사장급 이상	김진환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지법부장급	유영일	서울남부지원 부장판사		검사장급 이상	서정신	서울고검장
	지법부장급	윤홍근	지법 부장판사		고등검사급	백영기	인천지검 부장검사
	지법부장급	윤용섭	서울서부지원 부장판사		고등검사급	손창열	서울고검검사
	지법부장급	소순무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장급	신명교	사법연수원장
	판사급	문일봉	서울지법 판사		지법부장급	송정훈	서울지법 부장판사
	판사급	박주봉	경주지원 판사		지법부장급	하광호	서울지법 부장판사
	판사급	오정환	의정부지법 판사		지법부장급	조용연	서울지법 부장판사
	판사급	이선희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법부장급	정동윤	정충지원장
	판사급	이완수	서울동부지법 판사		지법부장급	정용국	서울지법 부장판사
	판사급	홍대식	서울지법 판사		판사급	한창호	서울고법 판사
	판사급	김세연	수원지법 판사		판사급	황주명	대법원 재판연구관

KCL	검사장급 이상	고영주	대검 부장	로고스	검사장급 이상	황선태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검사장급 이상	김세권	서울고검장		고등검사급	곽무근	서울고검 검사
	검사장급 이상	이건개	대전고검장		고등검사급	권순욱	서울지검 부장검사
	고등검사급	함귀용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고등검사급	김 용	서울고검 검사
	고등검사급	정동욱	서울고검 검사		고등검사급	손진영	서울고검 부장검사
	고등검사급	신건수	서울고검 부장검사		대법관급	이용우	대법관
	고등검사급	신언용	부산고검 검사		법원장급	양인평	부산고법원장
	고법부장급	이형하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장급	강원구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급	유지담	대법관		지법부장급	박동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법원장급	곽동효	특허법원장		지법부장급	양승국	수원지법 부장판사
	지법부장급	김희태	성남지원 지원장		지법부장급	정일성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지법부장급	최동식	부천지원장		지법부장급	최종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법부장급	심창섭	서울지법 부장판사		판사급	김무겸	서울고등법원 판사
	지법부장급	김용직	서울동부지원 부장판사		판사급	백현기	서울지법 판사
	지법부장급	김선중	서울지법 부장판사		판사급	송기영	서울지법 판사
	판사급	박종민	대법원재판연구관		판사급	전문수	서울지법 판사
	판사급	최원현	수원지법 판사		판사급	조배숙	서울고법 판사
서정	검사급	이정곤	부산동부지청 검사	지평	지법부장급	이홍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검사급	김용철	부천지청 검사		판사급	임지아	대구지법 판사
	검사급	이은태	서울지검 검사		판사급	박영주	부산지법 판사
	검사장급 이상	유순석	법무부 교정국장	대륙	검사급	전훈일	청주지검 검사
	검사장급 이상	김대웅	광주고검장		검사급	최정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고등검사급	권성동	인천지검 부장검사		검사장급 이상	정진규	법무연수원장
	대법관급	박만호	대법관		고등검사급	함승희	사산지청장
	법원장급	이홍복	특허법원장		대법관급	이시윤	헌법재판관
	판사급	남기정	서울북부지원 판사		지법부장급	김기동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판사급	유성훈	서울북부지원 판사		지법부장급	심재돈	서울지법 부장판사
	판사급	송희섭	서울북부지원 판사		지법부장급	여상조	여주지원장
로고스	검사급	강수진	홍성지청 검사	한결	판사급	조남대	서울지법 판사
	검사급	이동간	의정부지검 검사		고등검사급	오영상	경주지청 부장검사
	검사급	이상곤	서울지검 검사	지성	판사급	송두환	서울지법 판사
	검사급	최창무	인천지검 검사		검사급	최현희	서울서부지청 검사
	검사급	현경대	서울지검 검사		판사급	김창희	수원지법 판사
	검사장급 이상	전용태	대구지검장		판사급	김대희	서울지법 판사
	검사장급 이상	정홍원	법무연수원장				

Ⅱ 퇴직 판검사의 개업 현황



- 2002.~2006.10 퇴직 고위 법관 및 고위 검사의 현재 소속
- 2004.9~2006.7 퇴직 판·검사 퇴직 후 개업지 분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2004년 9월 발행한 '사법감시' 21호(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 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에서, 판사와 검사들의 퇴직 후 활동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당시 조사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음

첫째, 1990년~2004년 8월 사이 퇴직한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퇴직후 변호사 개업 여부

둘째, 2000년~2004년 8월 사이 퇴직한 판·검사들의 퇴직 후 변호사개업 여부 및 개업지

'사법감시' 28호에서는 '사법감시' 21호의 조사에 이어 다음 사항을 조사하였음

첫째, 2002년~2006년 10월 사이 퇴직한 고위 법관 및 고위 검사의 현재 소속 사무실 현황

2002년 이후 퇴직한 고위 법관(지방법원장, 고등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고위 검사(검찰총장급, 고등검사장, 검사장)들이 현재 변호사 개업을 하였는지, 특히 중대형 로펌 소속 여부를 조사하였음(중대형 로펌의 기준은 2006년 현재 변호사 수 20명이상으로 'I. 16개 중대형 로펌과 퇴직 판·검사'에서 다룬 16개 로펌을 가리킴)

둘째, 2004년 9월~2006년 7월 사이 퇴직한 판·검사들의 퇴직 후 변호사개업 여부 및 개업지



2002.~2006.10. 퇴직 고위 법관 및 고위 검사의 현재 소속

1-1. 퇴직 고위 법관

▶ 퇴직자 및 개업자 수

퇴직자 56명	개업자 52명 퇴직자 대비 92.9%	비개업자 또는 휴업자 4명
대법관급 이상 - 19명 (33.9%)	대법관급 이상 - 15명(78.9%)	조무제 전 대법관 - 동아대 석좌교수
고법원장 - 16명 (28.6%)	고법원장 - 16명(100%)	배기원 전 대법관 - 영남대 석좌교수
지법원장 - 21명 (37.5%)	지법원장 - 21명(100%)	손지열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 현재 단순 휴업상태

▶ 개업자중 중대형 로펌 소속 퇴직 고위 법관

총 24명 - 개업자 52명 대비 46.2%

중대형 로펌별 영입 퇴직 고위 법관(02년이후 퇴직자)					
로 펴	인원수	영입자(퇴직 전 직책)	로 펴	인원수	영입자(퇴직 전 직책)
바 른	6	최종영(대법원장), 박재윤(대법관), 홍일표(사법연수원장), 김동건(서울고법원장), 강병섭(서울중앙지법원장), 이영애(춘천지법원장)	로고스	3	윤영철(현재소장), 이용우(대법관), 강완규(서울고법원장)
			광 장	2	이규홍(대법관), 김인수(서울행정법원장)
			세 중	2	서 성(대법관), 이근웅(사법연수원장)
태평양	4	송진훈(대법관), 이강국(대법관), 정호영(서울고법원장), 오세립(서울서부지법원장)	울 촌	1	김대환(서울고법원장)
			충 정	1	신명균(사법연수원장)
화 우	3	변재승(대법관), 박영무(사법연수원장), 변동걸(서울중앙지법원장)	KCL	1	유지담(대법관)
			서 정	1	이홍복(특허법원장)

▶ 2002년 이후 퇴직 고위 법관 직급별 중대형로펌 소속 비중

고위 법관중에서도 대법관급 이상 > 고법원장 > 지법원장 순으로 중대형 로펌에 영입되는 비율이 높음

구 분	개업자(명)	중대형 로펌 영입자(명)	비 율
대법관급 이상	15	10	66.7%
고법원장급	16	9	56.3%
지법원장급	21	5	23.8%

1-2. 퇴직 고위 검사

▶ 퇴직자 및 개업자

퇴직자 43명, 개업자 43명

▶ 개업자중 중대형 로펌

16명 - 개업자 43명 대비 37.2%

▶ 2002년 이후 퇴직 고위 검사 직급별 중대형로펌 소속 비중

검찰총장급 이상 개업자 5명중 1명(20%)
고등검사장급 개업자 17명중 9명(52.9%),
(지검)검사장급 개업자 21명중 6명(28.6%)

자료 3. 2002~2006.10 퇴직 고위 법관의 현재 소속

직 급	이 름	퇴직당시 직위	퇴직일	현재 소속	직 급	이 름	퇴직당시 직위	퇴직일	현재 소속
대 법관 이 상	송진훈	대법관	03.02.18	법무법인 태평양	고 법원 장 관	김동건	서울고법원장	05.02.11.	법무법인 바른
	서 성	대법관	03.09.12	법무법인 세종		강완구	서울고법원장	05.11.04.	법무법인 로고스
	조우제	대법관	04.08.18	동아대 석좌교수		김연태	사법연수원장	05.11.04.	법무법인 에이스
	변재승	대법관	05.02.27.	법무법인 화우		이창구	대구고법원장	05.11.04.	이창구법률사무소
	최종영	대법원장	05.09.25.	법무법인 바른		곽동효	특허법원장	06.02.08.	법무법인 다래
	유지남	대법관	05.10.11.	법무법인 KOL		정호영	서울고법원장	06.06.21.	법무법인 태평양
	윤재식	대법관	05.10.11.	윤재식법률사무소		이흥복	특허법원장	06.08.24	법무법인 서정
	이용우	대법관	05.10.11.	법무법인 로고스	지 법원 장 관	김시승	부산지법원장	02.02.06	김시승법률사무소
	배기원	대법관	05.12.01.	영남대 석좌 교수		전도영	광주지법원장	02.02.18	법무법인 장원
	강신욱	대법관	06.07.11.	강신욱법률사무소		김상기	서울행정법원장	04.02.04	김상기법률사무소
	박재윤	대법관	06.07.11.	법무법인 바른		황인행	서울가정법원장	04.02.07	황인행법률사무소
	손지열	대법관	06.07.11.	(휴업)		김명길	인천지법원장	04.04.15	법무법인 집현
	이강국	대법관	06.07.11.	법무법인 태평양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	04.08.12	법무법인 바른
	이규홍	대법관	06.07.11.	법무법인 광장		이영애	춘천지법원장	04.08.12	법무법인 바른
	권 성	헌법재판관	06.08.11	(휴업)		오세립	서울서부지법원장	05.02.03.	법무법인 태평양
	김경일	헌법재판관	06.09.14	무등합동법률사무소		김인수	서울행정법원장	05.02.14.	법무법인 광장
	김효종	헌법재판관	06.09.14	법무법인 한승		조용무	대전지법원장	05.02.21.	조용무법률사무소
	송인준	헌법재판관	06.09.14	송인준법률사무소		송기홍	서울가정법원장	05.07.12.	법무법인 한승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06.09.14	법무법인 로고스		강문종	부산지법원장	05.11.04.	강문종법률사무소
고 법원 장 관	김대환	서울고법원장	02.02.02	법무법인 율촌		김목민	서울북부지법원장	05.11.04.	김목민법률사무소
	신명균	사법연수원장	02.02.07	법무법인 충정		변동걸	서울중앙지법원장	05.11.04.	법무법인 화우
	이용웅	서울고법원장	03.02.08	이용웅법률사무소		안성희	서울동부지법원장	05.11.04.	안성희법률사무소
	박영무	사법연수원장	03.02.11	법무법인 화우		우의형	서울행정법원원장	05.11.04.	우의형법률사무소
	최덕수	대구고법원장	03.02.11	법무법인 세영		이광렬	서울서부지법원장	05.11.04.	이광렬법률사무소
	신정치	서울고법원장	04.02.04	신정치법률사무소		박행용	광주지법원장	06.02.08.	박행용법률사무소
	홍일표	사법연수원장	04.02.07	법무법인 바른		양동관	서울가정법원장	06.06.21.	양동관법률사무소
	김재진	부산고법원장	05.02.02.	김재진법률사무소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	06.08.24	법무법인 한승
	이근웅	사법연수원장	05.02.05.	법무법인 세종		이종찬	서울북부지법원장	06.08.24	이종찬법률사무소

자료 4. 2002~2006.10 퇴직 고위 검사의 현재 소속

직 급	이 름	퇴직당시 직위	퇴직일	현재소속
총장급 이상	신승남	검찰총장	02.01.15	신승남법률사무소
총장급 이상	이명재	검찰총장	02.11.05	법무법인 태평양
총장급 이상	김각영	검찰총장	03.03.12	김각영 법률사무소
총장급 이상	송광수	검찰총장	05.04.03	송광수법률사무소
총장급 이상	김종빈	검찰총장	05.10.17	김종빈법률사무소
고등검사장	김경한	서울고검장	02.01.22	법무법인 세종
고등검사장	김영철	법무연수원장	02.01.22	법무법인 태평양
고등검사장	심재륜	부산고검장	02.01.22	심재륜법률사무소
고등검사장	김대웅	광주고검장	03.03.10	법무법인 서정
고등검사장	김승규	부산고검장	03.03.10	법무법인 로고스
고등검사장	이종찬	서울고검장	03.03.10	법무법인 에이스
고등검사장	한부환	법무연수원장	03.03.10	한부환법률사무소
고등검사장	김학재	대검 차장	03.03.13	법무법인 태일
고등검사장	명로승	법무부차관	03.03.13	법무법인 바른
고등검사장	김상희	대전고검장	04.06.01	김상희법률사무소
고등검사장	이범관	광주고검장	04.06.01	법률사무소 다솔
고등검사장	정홍원	법무연수원장	04.06.01	법무법인 로고스
고등검사장	이정수	대검 차장	05.04.01	김앤장
고등검사장	정진규	법무연수원장	05.04.04	법무법인 대륙
고등검사장	서영제	대구고검장	05.11.22	리 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고등검사장	임내현	법무연수원장	05.11.22	법무법인 세종
고등검사장	홍석조	광주고검장	06.01.31	홍석조법률사무소
검사장	김진관	서울고검 차장	02.07.08	김진관법률사무소
검사장	김규섭	부산고검 차장	03.03.13	김규섭법률사무소
검사장	김영진	전주지검장	03.03.13	김영진법률사무소
검사장	조규정	광주고검 차장	03.03.15	조규정법률사무소
검사장	박태종	대구지검장(대검 부장)	03.03.20	법무법인 렉스
검사장	장윤석	서울고검 차장	03.03.20	장윤석법률사무소
검사장	정충수	사법연수원 부원장	03.03.21	법무법인 동인
검사장	김원치	대검 부장	03.03.29	김원치법률사무소
검사장	유청종	대검 부장	03.04.25	법무법인 세종
검사장	김진환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03.12.31	법무법인 총정
검사장	곽영철	대검 부장	04.06.01	법무법인 한승
검사장	김용진	춘천지검장	04.11.01	정원합동법률사무소
검사장	김재기	수원지검장	05.04.04	김재기법률사무소
검사장	김희선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05.04.04	김앤장
검사장	박종렬	서울서부지검장	05.04.04	법무법인 태평양
검사장	윤종남	서울남부지검장	05.04.04	윤종남법률사무소
검사장	채수철	서울북부지검장	05.04.04	채수철법률사무소
검사장	황선태	서울동부지검장	05.04.04	법무법인 로고스
검사장	고영주	서울남부지검장	06.01.31	법무법인 KCL
검사장	유성수	의정부지검장	06.01.31	법무법인 로우25
검사장	이기배	수원지검장	06.01.31	이기배법률사무소



2004.9~2006.7 퇴직 판·검사 퇴직 후 개업지 분석

가. 조사범위

· 2004.9~2006.7 퇴직 판사와 검사

나. 출처

· 퇴직자 명단 -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 제공 퇴직자 명단(정보공개청구 2004.8~2006.7 명단)
· 대한변협 웹사이트, 로앤비(www.lawnb.com)

2-1. 퇴직자 대비 개업

: 판사 165명(퇴직자 178명 대비 92.7%)
: 검사 145명(퇴직자 156명 대비 92.9%)

구 분		퇴직자(명)	개업자(명)	비 율
퇴 직 법 관	대법관급 이상	11	9	81.8%
	법원장급	20	20	100%
	고법부장급	10	9	90%
	지법부장급	56	56	100%
	판사급	81	71	87.7%
합 계		178(명)	165(명)	92.7%
퇴 직 검 사	검사장급 이상	17	17	100%
	고등검사급	100	93	93%
	검사급	39	35	89.7%
합 계		156(명)	145(명)	92.9%

사법연습시 21호에서 발표했던 2000.1~2004.8 퇴직 법관들의 퇴직 후 개업비율은 95.6%(퇴직자 319명중 305명 개업)이었으며, 같은 기간중 퇴직 검사들의 퇴직 후 개업비율은 92.9%(퇴직자 254명중 236명 개업)이었음
따라서 별다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2-2. 개업자중 최종 근무지(퇴직 전 6개월 이내)에서 개업한 이

: 판사 - 152명(개업자 대비 92.1%)
: 검사 - 104명(개업자 대비 71.7%)

구 분				
		개업자(a)	퇴직 직전 근무지 개업자(b)	비 율(b/a)
퇴 직 법 관	대법관급 이상	9	9	100%
	법원장급	20	18	90%
	고법부장급	9	9	100%
	지법부장급	56	52	92.9%
	판사급	71	64	90.1%
합 계		165	152	92.1%
퇴 직 검 사	검사장급 이상	17	9	52.9%
	고등검사급	93	72	77.4%
	검사급	35	23	65.7%
합 계		145(명)	104(명)	71.7%

사법감시 21호에서 발표했던 2000.1~2004.8 퇴직 법관들의 퇴직 전 최종 근무지에서의 개업비율은 89.8%(개업자 305명중 274명)이었으며, 같은 기간중 퇴직 검사들의 퇴직 전 최종 근무지에서의 개업비율은 75%(개업자 236명중 176명)이었음

따라서 별다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2-3. 직급별 개업지 분포

- ▶ 직급이 높을수록 서울지역에서 많이 개업. 높은 직급은 근무지와 상관없이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서 최종 근무지를 고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구 분	개업자	직급별 개업지
대법관급 이상	9	서울 관할지 9명 - 100%
법원장급	20	서울 관할지 17명 -85%, 부산·광주·대전 관할지 각 1명 - 각 8.3%
고법부장급	9	서울 관할지 9명 - 100%
지법부장급	56	서울 관할지 35명 - 62.5%, 인천 관할지 5명 - 8.9%, 대구·부산·수원·의정부 관할지 각 3명 - 각 5.4%, 대전·광주·울산·전주 관할지 각 1명 - 각 1.8%
판사급	71	서울 관할지 37명 - 52.1%, 광주 관할지 9명 - 12.7%, 수원 관할지 8명 - 8.5%, 인천 관할지 5명 - 7.0%, 창원 관할지 4명 - 5.6%, 부산 관할지 3명 - 4.2%, 의정부 관할지 2명 - 2.8%, 대구·춘천·청주 관할지 각 1명 - 각 1.4 %
합 계	165	

구 분	개업자	직급별 개업지
검사장급 이상	17	서울 관할지 16명 - 94.1%, 인천 관할지 1명 - 5.9%
고등검사급	93	서울 관할지 70명 - 75.3%, 인천·수원 관할지 각 7명 - 각 7.5%, 대구·의정부 관할지 각 2명 - 각 2.2%, 부산·광주·대전·전주·창원 관할지 각 1명 - 각 1.1%
검사급	35	서울 관할지 24명 - 68.6%, 부산·수원·광주 관할지 각 2명 - 각 5.7%, 대구·인천·청주·춘천·의정부 관할지 각 1명 - 각 2.9%
합 계	145	

자료 5. 2004.9~2006.7 퇴직 판사 퇴직 후 개업현황

직 급	이 름	최종 근무지 및 직위	개업지	퇴직후 개업소속	퇴직일
대법관급 이상	변재승	대법관	서울	법무법인 화우	050227.
대법관급 이상	최종영	대법원장	서울	법무법인 바른	0509.25.
대법관급 이상	유지담	대법관	서울	법무법인 KCL	05.10.11.
대법관급 이상	윤재식	대법관	서울	윤재식·이주현법률사무소	05.10.11.
대법관급 이상	이용우	대법관	서울	법무법인 로고스	05.10.11.
대법관급 이상	배기원	대법관	휴업	영남대 석좌 교수	05.12.01.
대법관급 이상	강신욱	대법관	서울	강신욱법률사무소	0607.11.
대법관급 이상	박재윤	대법관	서울	법무법인 바른	0607.11.
대법관급 이상	손지열	대법관	휴업		0607.11.
대법관급 이상	이강국	대법관	서울	이강국법률사무소	0607.11.
대법관급 이상	이규홍	대법관	서울	법무법인 광장	0607.11.
법원장급	강철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청람합동법률사무소	04.11.25
법원장급	김재진	부산고법원장	서울*	김재진·임경윤법률사무소	050202.
법원장급	오세립	서울서부지법원장	서울	법무법인 태평양	050203.
법원장급	이근웅	사법연수원장	서울	법무법인 세종	050205.
법원장급	김동건	서울고법원장	서울	법무법인 바른(강남)	0502.11.
법원장급	김인수	서울행정법원장	서울	법무법인 광장 고문	0502.14.
법원장급	조용무	대전지법원장	대전	조용무법률사무소	0502.21.
법원장급	송기홍	서울가정법원장	서울	법무법인 한승	0507.12.
법원장급	이창구	대구고법원장	서울*	이창구법률사무소	05.11.04.
법원장급	김연태	사법연수원장	서울	법무법인 에이스	05.11.04.
법원장급	강완구	서울고법원장	서울	법무법인 로고스	05.11.04.
법원장급	강문종	부산지법원장	부산	강문종법률사무소	05.11.04.
법원장급	안성희	서울동부지법원장	서울	안성희법률사무소	05.11.04.
법원장급	김목민	서울북부지법원장	서울	김목민법률사무소	05.11.04.
법원장급	이광렬	서울서부지법원장	서울	이광렬법률사무소	05.11.04.
법원장급	변동걸	서울중앙지법원장	서울	법무법인 화우	05.11.04.
법원장급	우의형	서울행정법원장	서울	우의형법률사무소	05.11.04.
법원장급	곽동효	특히법원장	서울	법무법인 다래	0602.08.
법원장급	박행웅	광주지법원장	광주	박행웅법률사무소	0602.08.
법원장급	정호영	서울고법부장	서울	법무법인 태평양	0606.21.
법원장급	양동관	서울가정법원장	서울	양동관법률사무소	0606.21.
고법부장급	최병학	서울고법부장	서울	최병학 법률사무소	0501.14.
고법부장급	김치중	서울고법부장	서울	법무법인 바른	050205.
고법부장급	이형하	서울고법부장	서울	법무법인 KCL	050205.
고법부장급	한기택	대전고법부장	별세		0507.24.
고법부장급	김영태	서울고법부장	서울	김영태법률사무소	0602.07.
고법부장급	노영보	서울고법부장	서울	법무법인 태평양	0602.07.
고법부장급	이홍권	서울고법부장	서울	이홍권법률사무소	0602.07.
고법부장급	이성룡	서울고법부장	서울	법무법인 일신	0606.21.
고법부장급	홍성무	서울고법부장	서울	법무법인 동인	0606.21.
지법부장급	나병영	부산지법부장	부산	법무법인 정인	0502.14.
지법부장급	신해중	의정부지법부장	의정부	신해중·김영학법률사무소	0502.14.
지법부장급	국상중	인천지법부장	인천	국상중법률사무소	0502.14.
지법부장급	이상인	인천지법부장	인천	법무법인 로시스	0502.14.

지법부장급	조용균	인천지법부장	인천	법무법인 로웰	050214.
지법부장급	장광환	광주지법부장	광주	장광환법률사무소	050221.
지법부장급	허 명	대구지법부장	대구	명우합동법률사무소	050221.
지법부장급	남영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	SK 텔레콤	050221.
지법부장급	성열우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	삼성전자 법무실	050221.
지법부장급	오세화	부산지법부장	부산	법무법인 정률	050221.
지법부장급	고원석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법무법인 광장	050221.
지법부장급	이선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이선희법률사무소	050221.
지법부장급	홍중표	서울가정법원부장	서울	홍중표법률사무소	050221.
지법부장급	김건일	서울남부지법부장	서울	김건일법률사무소	050221.
지법부장급	박순성	서울서부지법부장	서울	김앤장	050221.
지법부장급	김동윤	서울중앙지법부장	서울	씨앤케이 법률사무소	050221.
지법부장급	김상균	서울중앙지법부장	서울	삼성전자 법무실	050221.
지법부장급	박기동	서울중앙지법부장	서울	박기동주영훈 법률사무소	050221.
지법부장급	박 찬	서울중앙지법부장	서울	박찬 법률사무소	050221.
지법부장급	황경남	서울중앙지법부장	서울	황경남임영식 법률사무소	050221.
지법부장급	김동욱	울산지법부장	울산	김동욱법률사무소	050221.
지법부장급	박용규	부천지원장	인천	박용규 법률사무소	050221.
지법부장급	이원규	서울남부지법부장	서울	이원규법률사무소	05.04.27.
지법부장급	채동헌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법무법인 화우	0602.13.
지법부장급	홍석범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김앤장	0602.13.
지법부장급	김중곤	서울행정법원부장	서울	법무법인 한승	0602.13.
지법부장급	정병문	수원지법부장	서울	김앤장	0602.13.
지법부장급	최종갑	수원지법부장	수원	최종갑법률사무소	0602.13.
지법부장급	김병주	의정부지법부장	서울	김병주법률사무소	0602.13.
지법부장급	김원종	의정부지법부장	의정부	김원종법률사무소	0602.13.
지법부장급	박 혁	의정부지법부장	의정부	박혁법률사무소	0602.13.
지법부장급	문종식	인천지법부장	인천	문종식법률사무소	0602.13.
지법부장급	김창섭	대구지법부장	대구	김창섭 법률사무소	06.02.20.
지법부장급	황현호	대구지법부장	대구	황현호·김광재 합동법률사무소	06.02.20.
지법부장급	한상곤	대전지법부장	대전	한상곤법률사무소	06.02.20.
지법부장급	김진수	부산지법부장	부산	법무법인 국제	06.02.20.
지법부장급	김선종	서울가정법원부장	서울	김선종법률사무소	06.02.20.
지법부장급	고영석	서울남부지법부장	서울	고영석법률사무소	06.02.20.
지법부장급	김만오	서울남부지법부장	서울	법무법인 화우	06.02.20.
지법부장급	박동영	서울남부지법부장	서울	법무법인 로고스	06.02.20.
지법부장급	이경철	서울남부지법부장	서울	이경철법률사무소	06.02.20.
지법부장급	정일성	서울남부지법부장	서울	법무법인 로고스	06.02.20.
지법부장급	김상근	서울동부지법부장	서울	김앤장	06.02.20.
지법부장급	양호승	서울북부지법부장	서울	법무법인 화우	06.02.20.
지법부장급	조수현	서울서부지법부장	서울	조수현법률사무소	06.02.20.
지법부장급	주경진	서울서부지법부장	서울	법무법인 바른	06.02.20.
지법부장급	김덕진	서울중앙지법부장	서울	김덕진법률사무소	06.02.20.
지법부장급	김선홍	서울중앙지법부장	서울	김선홍법률사무소	06.02.20.
지법부장급	손윤하	서울중앙지법부장	서울	손윤하법률사무소	06.02.20.
지법부장급	이충상	서울중앙지법부장	서울	법무법인 바른	06.02.20.
지법부장급	이홍철	서울중앙지법부장	서울	법무법인 지평	06.02.20.

지법부장급	최중현	서울중앙지법부장	서울	법무법인 로고스	0602.20.
지법부장급	김희태	성남지원장	서울*	법무법인 KCL	0602.20.
지법부장급	황경학	수원지법부장	수원	황경학법률사무소	0602.20.
지법부장급	최동식	부천지원장	서울*	법무법인 KCL	0602.20.
지법부장급	류연만	전주지법부장	전주	유연만법률사무소	0602.20.
판사급	정원진	춘천지법	서울*	정원진 법률사무소	04.10.11.
판사급	신영길	울산지법	부산*	신영길법률사무소	04.10.29.
판사급	장낙원	홍성지원	개업않음		04.11.25.
판사급	정재중	광주지법	광주	정재중 법률사무소	050202.
판사급	김창모	경주지원	개업않음		050202.
판사급	정찬원	광주지법	광주	정찬원 법률사무소	050214.
판사급	이정훈	순천지원	순천	이정훈 법률사무소	050214.
판사급	이선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	법무법인 율촌	050214.
판사급	이한석	부산고법	부산	법무법인 국제	050214.
판사급	곽동우	서울고법	서울	법무법인 화우	050214.
판사급	김주형	서울남부지법	서울	김주형법률사무소	050214.
판사급	이보현	서울동부지법	서울	이보현법률사무소	050214.
판사급	김태웅	서울북부지법	서울	김태웅법률사무소	050214.
판사급	김현성	서울북부지법	서울	법무법인 아주 북부분사무소	050214.
판사급	박철희	서울북부지법	서울	김앤장	050214.
판사급	양범석	서울중앙지법	서울	양범석 법률사무소	050214.
판사급	오수평	서울중앙지법	서울	오수평 법률사무소	050214.
판사급	김영훈	수원지법	수원	김영훈 법률사무소	050214.
판사급	윤영선	수원지법	수원	윤영선·백경아 법률사무소	050214.
판사급	김도균	성남지원	성남	김도균 법률사무소	050214.
판사급	박형준	안산지원	안산	박형준 법률사무소	050214.
판사급	김광수	인천지법	인천	법무법인 정	050214.
판사급	박준범	인천지법	인천	법무법인 명문	050214.
판사급	김재상	창원지법	창원	김재상 법률사무소	050214.
판사급	백승엽	창원지법	경남	백승엽 법률사무소	050214.
판사급	이재구	원주지원	원주	법무법인 아주 원주 분사무소	050214.
판사급	임지아	대구지법	서울*	법무법인 지평	050221.
판사급	이명신	공주지원	개업않음		050221.
판사급	최윤희	사법연수원 교수	휴업		050221.
판사급	이육래	서울고법	서울	김앤장	050221.
판사급	강현중	서울중앙지법	서울	김앤장	050221.
판사급	곽내원	서울행정법원	서울	법무법인 광장	050221.
판사급	신봉철	서울행정법원	서울	법무법인 이산	050221.
판사급	안덕호	서울행정법원	수원*	삼성전자 법무실	050221.
판사급	백용하	수원지법	개업않음		050221.
판사급	양정일	인천지법	서울*	SK C&C	050221.
판사급	조병길	인천지법	휴업		0509.09.
판사급	임상소	군산지원	휴업		0602.02.
판사급	유 언	제주지법	휴업	충남대학교 교수	0602.02.
판사급	엄운용	인천지법	인천	엄운용강인석법률사무소	0602.13.
판사급	기세운	광주지법	광주	기세운법률사무소	0602.13.
판사급	박덕희	광주지법	광주	양&박 법률사무소	0602.13.

판사급	양태열	광주지법	광주	양태열법률사무소	0602.13.
판사급	오영표	광주지법	광주	오영표법률사무소	0602.13.
판사급	윤기수	순천지원	광주	윤기수법률사무소	0602.13.
판사급	양희묵	대구지법	대구	양희묵법률사무소	0602.13.
판사급	박재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	박재완법률사무소	0602.13.
판사급	강동욱	서울고법	서울	법무법인 태평양	0602.13.
판사급	김관중	서울고법	서울	법무법인 바른	0602.13.
판사급	김무겸	서울고법	서울	법무법인 로고스	0602.13.
판사급	임정수	서울고법	서울	법무법인 한승	0602.13.
판사급	김영규	서울남부지법	서울	김영규법률사무소	0602.13.
판사급	이철원	서울남부지법	서울	김앤장	0602.13.
판사급	최광휴	서울남부지법	서울	최광휴법률사무소	0602.13.
판사급	이상철	서울동부지법	서울	이상철법률사무소	0602.13.
판사급	이완수	서울동부지법	서울	법무법인 율촌	0602.13.
판사급	김삼범	서울북부지법	서울	김앤장	0602.13.
판사급	송찬호	서울중앙지법	개업않음		0602.13.
판사급	전정훈	서울중앙지법	서울	법무법인 한승	0602.13.
판사급	장호진	수원지법	수원	장호진법률사무소	0602.13.
판사급	전상근	안산지법	안산	전상근법률사무소	0602.13.
판사급	백철우	의정부지법	의정부	백철우법률사무소	0602.13.
판사급	전우진	의정부지법	의정부	전우진법률사무소	0602.13.
판사급	김영진	인천지법	인천	김영진법률사무소	0602.13.
판사급	김봉수	창원지법	창원	김봉수윤두철법률사무소	0602.13.
판사급	박종태	창원지법	창원	박종태법률사무소	0602.13.
판사급	이철환	순천지원	휴업		0602.20.
판사급	강기중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	AIP법률특허사무소	0602.20.
판사급	박종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	법무법인 KCL	0602.20.
판사급	김선옥	부산지법	부산	김선옥법률사무소	0602.20.
판사급	이상우	서울북부지법	서울	김앤장	0602.20.
판사급	김경호	서울중앙지법	서울	김앤장	0602.20.
판사급	박정삼	서울중앙지법	서울	김앤장	0602.20.
판사급	이규호	서울중앙지법	서울	법무법인 태평양	0602.20.
판사급	전종민	서울행정법원	서울	법무법인 화우	0602.20.
판사급	이종업	평택지원	평택	이종업법률사무소	0602.20.
판사급	오정한	의정부지법	서울	법무법인 율촌	0602.20.
판사급	곽용섭	청주지법	청주	곽용섭법률사무소	0602.20.
판사급	김종업	광주지법	광주	김종업법률사무소	0606.21.
판사급	이상일	인천지법	인천	이상일법률사무소	0606.21.
판사급	원형일	군산지원	서울*	원형일법률사무소	0606.21.

*는 최종근무지와 개업지가 다른 경우를 뜻함.

자료 6. 2004.9~2006.7 퇴직 검사 퇴직 후 개업현황

직 급	이 름	최종 근무지 및 직위	개업지	퇴직후 개업소속	퇴직일
검사장급 이상	고영주	서울남부지검장	서울	법무법인 KCL	2006.01.31
검사장급 이상	김용진	춘천지검장	서울*	정원합동법률사무소	2004.11.01
검사장급 이상	김재기	수원지검장	서울*	김재기법률사무소	2005.04.04
검사장급 이상	김종빈	검찰총장	서울	김종빈법률사무소	2005.10.17
검사장급 이상	김희선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서울	김앤장	2005.04.04
검사장급 이상	박종렬	서울서부지검장	서울	법무법인 태평양	2005.04.04
검사장급 이상	서영제	대구고검장	서울*	리 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2005.11.22
검사장급 이상	송광수	검찰총장	서울	송광수법률사무소	2005.04.03
검사장급 이상	유성수	대전지검장(의정부지검장)	인천*	법무법인 로우25	2006.01.31
검사장급 이상	윤종남	서울남부지검장	서울	윤종남법률사무소	2005.04.04
검사장급 이상	이기배	수원지검장	서울*	이기배법률사무소	2006.01.31
검사장급 이상	이정수	대검 차장	서울	김앤장	2005.04.01
검사장급 이상	임내현	법무연수원장	서울*	법무법인 세종	2005.11.22
검사장급 이상	정진규	법무연수원장	서울*	법무법인 대륙	2005.04.04
검사장급 이상	채수철	서울북부지검장	서울	채수철법률사무소	2005.04.04
검사장급 이상	홍석조	광주고검장	서울*	홍석조법률사무소	2006.01.31
검사장급 이상	황선태	서울동부지검장	서울	법무법인 로고스	2005.04.04
고등검사급	강대석	서울고검 검사(광주고검 검사)	서울	강대석법률사무소	2005.05.01
고등검사급	고천척	서울북부지검 부장	서울	고천척법률사무소	2005.04.18
고등검사급	공성국	서울고검 검사	서울	법무법인 화우	2006.03.23
고등검사급	곽무근	서울고검 검사	서울	법무법인 로고스	2006.02.20
고등검사급	권성동	인천지검 부장(광주고검 검사)	서울*	법무법인 서정	2006.04.13
고등검사급	김 용	서울고검 검사	서울	법무법인 로고스	2006.06.14
고등검사급	김광암	인천지검 부장	인천	김광암고만지법률사무소	2005.04.18
고등검사급	김근식	천인지청 부장	천안	김근식법률사무소	2006.02.20
고등검사급	김대식	서울고검 검사	서울	김대식 법률사무소	2005.05.01
고등검사급	김명진	서울고검 부장	서울	김명진법률사무소	2006.02.20
고등검사급	김문곤	의정부지검 부장	의정부	김문곤법률사무소	2005.11.30
고등검사급	김상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서울	김상우법률사무소(삼성그룹)	2005.04.18
고등검사급	김성준	광주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울*	김성준법률사무소	2005.06.17
고등검사급	김시진	인천지검 부장	인천	김시진법률사무소	2005.08.16
고등검사급	김영훈	부산지검 부장	부산	김영훈법률사무소	2005.10.21
고등검사급	김옥철	서울고검 검사	대구*	김옥철법률사무소	2005.07.07
고등검사급	김윤성	군산지청장(대구고검 검사)	서울*	김윤성법률사무소	2006.04.06
고등검사급	김정필	성남지청 부장	성남	김정필법률사무소	2006.03.28
고등검사급	김종국	청주지검 부장	서울*	김앤장	2005.08.16
고등검사급	김종영	서울고검 검사	서울	김종영법률사무소	2005.10.10
고등검사급	김필규	수원지검 부장(대구지검 부장)	서울*	김필규법률사무소	2005.05.01
고등검사급	김학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대구고검 검사)	서울*	김학근법률사무소	2006.03.01
고등검사급	김홍면	서울북부지검 부장(대구고검 검사)	서울	김홍면법률사무소	2005.05.01
고등검사급	노명선	서울동부지검 부장	서울	노명선법률사무소	2005.09.09
고등검사급	문규상	대전고검 검사	개업없음		2006.06.26
고등검사급	문영식	광주고검 검사	개업없음	서울시립대	2005.08.01
고등검사급	박 만	성남지청장	서울*	박만법률사무소	2005.04.18
고등검사급	박기준	서울고검 검사	개업없음		2005.01.01

고등검사급	박승로	대구지검 형사부장(서울고검 검사)	대구	박승로법률사무소	2006.02.28
고등검사급	박윤희	서울고검 부장	서울	박윤희법률사무소	2006.02.20
고등검사급	박종순	서울중앙지검 부장	서울	박종순법률사무소	2005.05.10
고등검사급	박태석	서울고검 검사	서울	박태석법률사무소	2006.03.23
고등검사급	박해운	서울중앙지검 부장	서울	박해운법률사무소	2005.05.01
고등검사급	박홍수	성남지청 부장(광주지검 부장)	성남	박홍수법률사무소	2006.03.01
고등검사급	백승민	대검 과장	서울	백승민법률사무소	2005.02.21
고등검사급	백영기	인천지검 부장	서울*	법무법인 충정	2006.02.20
고등검사급	부동훈	서울고검 검사	서울	정임합동법률사무소 대표	2005.04.26
고등검사급	서우정	서울고검 검사	서울	삼성기업구조조정본부 법무실	2004.11.20
고등검사급	서주홍	대구고검 검사	서울*	서주홍법률사무소	2005.05.01
고등검사급	서창희	서울고검 검사	서울	법무법인 광장	2006.04.28
고등검사급	손성현	서울고검 검사	서울	손임법률사무소	2006.03.31
고등검사급	손진영	서울고검 부장	서울	법무법인 로고스	2005.04.18
고등검사급	손창렬	서울고검 검사(춘천지검 차장)	서울	법무법인 충정	2006.02.28
고등검사급	송관호	서울서부지검 부장	개업않음	현대자동차그룹법무실	2005.07.15
고등검사급	송민호	안산지청 차장(부산고검 검사)	안산	송민호법률사무소	2005.05.01
고등검사급	송재양	서울중앙지검 부장(부산지검 부장)	서울	송재양법률사무소	2005.05.01
고등검사급	신남규	서울고검 검사	서울	법무법인 에이스	2005.05.01
고등검사급	신동희	서울고검 검사	서울	법무법인 렉스	2006.02.20
고등검사급	신병수	서울고검 검사(부산고검 검사)	서울	신병수법률사무소	2006.03.01
고등검사급	심동섭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부산고검 검사)	서울*	법무법인 소명	2006.03.01
고등검사급	안원식	인천지검 부장	인천	안원식법률사무소	2006.02.20
고등검사급	안희권	고양지청 부장(서울고검 검사)	고양	안희권법률사무소	2005.05.12
고등검사급	오세범	수원지검 부장	수원	오세범법률사무소	2006.04.11
고등검사급	오해균	서울동부지검 부장	서울	오해균법률사무소	2006.07.20
고등검사급	용응규	광주지검 부장	광주	법무법인 로컴	2006.02.20
고등검사급	유재만	서울중앙지검 부장	서울	이삼법률사무소	2006.02.20
고등검사급	윤석만	수원지검 부장(대전고검 검사)	수원	윤석만법률사무소	2005.05.01
고등검사급	윤찬섭	수원지검 부장	수원	윤찬섭법률사무소	2005.08.01
고등검사급	윤형모	인천지검 부장	인천	윤형모법률사무소	2004.08.31
고등검사급	이 삼	서울고검 검사	서울	유재만법률사무소	2006.02.20
고등검사급	이광재	서울동부지검 부장(대전지검 부장)	서울	이광재법률사무소	2005.05.01
고등검사급	이권재	인천지검 부장	인천	법무법인 명문	2006.02.20
고등검사급	이두희	인천지검 부장	인천	이두희법률사무소	2005.08.29
고등검사급	이만희	서울고검 검사	서울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2006.03.27
고등검사급	이병식	부산지검 부부장	서울*	김안장	2005.09.29
고등검사급	이성규	부산고검 검사	서울*	김안장	2005.03.15
고등검사급	이승섭	서울중앙지검 부장	서울	법무법인 태평양	2006.02.20
고등검사급	이영세	서울남부지검 부장	서울	나눔법률사무소	2005.11.30
고등검사급	이영우	대전고검 검사	서울*	이영우법률사무소	2005.05.01
고등검사급	이영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서울	이정우법률사무소	2005.05.01
고등검사급	이재순	서울중앙지검 부장	개업않음		2005.09.20
고등검사급	이재우	서울중앙지검 부장(수원지검 부장)	서울	이재우법률사무소	2006.04.13
고등검사급	이주웅	서울동부지검 부장(광주고검 검사)	서울	이주웅법률사무소	2005.05.01
고등검사급	이창복	서울고검 검사(부산고검 검사)	창원*	이창복법률사무소	2005.05.30
고등검사급	이충호	서울고검 검사	서울	이충호법률사무소	2005.05.01

고등검사급	이훈훈	서울중앙지검 부장	서울	이훈훈법률사무소	2005.02.28
고등검사급	임성기	창원지검 부장	서울	임성기법률사무소	2005.01.01
고등검사급	임안식	서울고검 검사	서울	법무법인 바른법률	2005.08.12
고등검사급	임창진	서울고검 검사	서울	손임법률사무소	2006.03.31
고등검사급	전창영	부산고검 검사	서울*	법무법인 화우	2005.04.18
고등검사급	정구환	서울고검 검사	개업않음		2006.06.27
고등검사급	정병욱	대구고검 검사	서울	정병욱법률사무소	2005.01.24
고등검사급	정연준	서울서부지검 부장	서울	서부제일합동법률사무소	2006.02.20
고등검사급	정재호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서울	정재호법률사무소	2005.12.29
고등검사급	정진섭	대전지검 부장	고양*	법무법인 일산	2006.02.07
고등검사급	정홍화	수원지검 부장(부산고검 검사)	수원	정홍화법률사무소	2006.04.13
고등검사급	조남관	서울동부지검 검사	개업않음		2006.04.01
고등검사급	조대환	서울고검 검사	서울	조대환법률사무소	2005.05.01
고등검사급	조영수	서울고검 검사	서울	조영수김은철법률사무소	2006.03.31
고등검사급	조영준	전주지검 부장	전주	조영준법률사무소	2005.08.31
고등검사급	조응천	서울북부지검 부부장(수원지검 부장)	서울	김앤장	2005.08.16
고등검사급	주성원	서울고검 검사	서울	주성원법률사무소	2005.09.30
고등검사급	채정석	서울남부지검 부장	서울	씨앤케이법률사무소	2005.01.31
고등검사급	최광태	서울남부지검 부장	의정부*	최광태법률사무소	2005.05.01
고등검사급	최정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서울	법무법인 대륙	2006.04.14
고등검사급	최진안	서울고검 검사(대전고검 검사)	서울	최진안법률사무소	2006.03.01
고등검사급	추유엽	서울서부지검 차장(대구고검 검사)	서울	추유엽법률사무소	2006.03.01
고등검사급	하용득	창원지검 부장	서울*	하용득법률사무소(GS건설)	2006.02.20
고등검사급	한창식	인천지검 부장	인천	한창식법률사무소	2005.02.21
고등검사급	함귀용	서울동부지검 부장	서울	법무법인 KCL	2005.07.28
검사급	구지현	부산동부지검 검사	부산	구지현법률사무소	2005.08.16
검사급	구태언	대전지검 검사	서울*	김앤장	2005.12.14
검사급	김봉주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	김앤장	2005.04.25
검사급	김영광	서울중앙지검 검사	개업않음		2006.06.23
검사급	김중식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	김중식법률사무소	2004.12.16
검사급	김진태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	김진태법률사무소	2005.08.16
검사급	김찬학	청주지검 검사	청주	김찬학법률사무소	2006.02.20
검사급	김홍길	목포지청 검사	목포	김홍길법률사무소	2006.07.24
검사급	문봉길	대전지검 검사	개업않음		2005.12.31
검사급	박 혁	창원지검 검사	서울*	법무법인 세종	2005.02.21
검사급	박성수	수원지검 검사	개업않음		2005.09.30
검사급	박용주	성남지청 부부장	서울*	법무법인 탑	2005.01.01
검사급	박태기	서울동부지검 검사	서울	박태기법률사무소	2005.08.16
검사급	박한경	대전지검 검사	대구*	박한경법률사무소	2005.02.28
검사급	배병창	부천지청 검사	서울*	법무법인 광장	2005.12.31
검사급	성민경	서울서부지검 검사	서울	성민경법률사무소	2004.12.16
검사급	신시현	서울동부지검 검사	서울	리 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2006.05.31
검사급	양경희	수원지검 검사	광주*	양&박법률사무소	2006.02.20
검사급	염용표	수원지검 검사	서울*	법무법인 율촌	2005.02.21
검사급	여지선	수원지검 검사	서울*	여지선법률사무소	2005.10.27
검사급	원길연	원주지청 검사	원주	원길연법률사무소	2004.11.25
검사급	유 혁	법무부 검사	서울	삼성전자 법무팀	2005.02.21

검사급	유미라	성남지청 검사	개업양음	헌법재판소 연구관보	2006.02.20
검사급	유병규	서울중앙지검 검사(순천지청 부부장)	서울	유병규법률사무소	2005.04.18
검사급	이동간	의정부지검 검사	서울*	법무법인 로고스	2006.06.28
검사급	이병수	법무부 검사(제주지검 검사)	서울	법무법인 화우	2006.07.07
검사급	이상현	성남지청 검사	서울	이상현법률사무소	2006.06.16
검사급	이재호	성남지청 검사	성남	이재호법률사무소	2006.02.20
검사급	이한선	서울북부지검 검사	서울	이한선법률사무소	2005.08.16
검사급	이훈재	서울남부지검 검사	서울	이훈재법률사무소	2005.08.16
검사급	임재동	서울동부지검 검사	서울	김안장	2006.02.20
검사급	장문수	진주지청 검사	서울*	장문수법률사무소	2005.12.23
검사급	장연화	인천지검 검사	인천	장연화법률사무소	2006.02.20
검사급	정상식	법무부 검사	서울	정상식법률사무소(주한화 법무실)	2005.08.16
검사급	정승윤	부산지검 검사	부산	정승윤법률사무소	2004.11.30
검사급	정준길	울산지검 검사	서울*	정준길법률사무소	2005.02.21
검사급	정진호	부천지청 검사	서울*	아이앤에스법률사무소	2005.10.28
검사급	최관수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	김안장	2005.12.23
검사급	최낙현	수원지검 검사	수원	최낙현법률사무소	2005.02.21

*는 최종근무지와 개업지가 다른 경우를 뜻함

■판결비평

· 광장에서 본 판결 2006-01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올바른가 – 정책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문제있어”

(2005.9.30. 선고, 대법원 2005도398) / 2006.1.12

· 광장에서 본 판결 2006-02

“법원이 기댄 ‘사회통념’, 진짜 사회통념일까? – 내부고발의 현실무시하고, 보복적 인사조치를 정당화한 판결”

(2006.1.9. 선고, 수원지법 2004나20224) / 2006.2.8

· 광장에서 본 판결 2006-03

“교육을 위해 기증된 공적재산을 사유재산으로 환원시킨 판결 – 상지대 정이사 선임무효 확인 사건”

(2006.2.14 선고, 서울고법 2004나30776) / 2006.3.23

· 광장에서 본 판결 2006-04

“불순한 목적의 불법명의신탁, 법원이 도와줄 수 없다 – 반사회적 목적의 불법명의 신탁에 썩기를 막은 하급심 판결”

(2006.6.9 선고, 서울서부지법 2005가단2182) / 2006.7.21

· 광장에서 본 판결 2006-05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계약’ 이 과연 불공정약관인가 – 단호한 부패추방 노력과 대비되는 대전지법의 느슨한 판결”

(대전지법 2006카합774) / 2006.9.18

· 광장에서 본 판결 2006-06

“‘정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따뜻한 손길을 줘야 할 법원 – 경위와 사정을 고려한 대법원의 전부 면책 결정”

(2006.9.22 선고 대법원 2006마600) / 2006.11.13

■이슈리포트

· [정부제출 로스쿨 법률안 국회심의 모니터]

– 교육위, 정부제출안 일부분 합리적 수정, 하지만 여전히 극복 못한 “변협눈치보기” / 2006.4.11

· [대법관 임명동의 요청사유 조사결과 보고서]

– 2000년 이후 임명 대법관 13명, 임명제정권자들은 무엇에 주목했나 / 2006.6.1

·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 실태 조사 보고서]

– 법률소비자가 변호사 징계정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사실상 없어 / 2006.7.5

· [2000년 이후 배임·횡령 기업인 범죄 판결사례 조사]

– 배임, 횡령 기업인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처벌 여러 측면에서 분명히 확인돼 / 2006.7.13

· [‘디딤돌과 걸림돌 결정’을 통해 본 제3기 헌법재판소]

– 제4기 현재는 10개의 디딤돌을 밟고 10개의 걸림돌을 넘어서야 / 2006.8.8

■제도개혁

· [논평] 로스쿨 평가, 대한변협이 독점해야 할 이유있나? / 2006.3.20

· [논평] 국회 교육위, 로스쿨 법률안 4월중 처리 합의에 대해 / 2006.4.4

· [한겨레 21-참여연대 좌담] 흥미롭고 어색한 민주주의 1교시 –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2006.4.12

· [논평] 로스쿨 법률안,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통과에 대해 / 2006.4.18

· [논평] 한나라당은 정책정당이기를 포기하는가 / 2006.4.24

· [논평] 10년간의 사법개혁 논의 결과, 국회가 좌절시켜서는 안돼 / 2006.8.32

· [논평]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감정 싸움’ 아닌 ‘사법개혁 추진’ 이다 / 2006.9.22

참여연대와 짝 띄우는 희망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부패추방 및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
핸드폰 요금인하 및 시민권리찾기운동,
삼성그룹의 편법증여와 탈세에 대한 세금부과 촉구 등 조세개혁운동,
썩고 낡은 정치인들을 몰아내자는 두 번의 낙선운동,
이라크 침략전쟁 반대와 한반도 평화군축을 위한 반전평화운동,
최저생계비/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등 사회복지운동

...

벌써 10년입니다.

“아직 남은 빈자리를 채워주실 더 많은 회원들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e-mail : mc@pspd.org

www.peoplepower21.org

사법감시 에 힘을 보태주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 9월 참여연대 창립과 더불어
인권옹호와 사법정의 실현 및 사법영역의 시민참여를 목표로 발족했습니다.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0여년간 일관되고 꾸준한 활동을 통해
시민운동의 불모지였던 사법영역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일구어왔습니다.



사법감시센터는
시민의 감시와 참여의 무풍지대였던 법조계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이 내용을 정리하여 모니터 대상이 되고있는 법조인들에게 제공하는 매체인 **사법감시**를
95년 10월부터 발행해왔습니다.

사법감시는 현재 전국의 판사와 검사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법학자 등에게는 전자우편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법감시센터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으로 **사법감시**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 회원(후원부서 : 사법감시센터)으로 가입해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513-088742-13-101 (예금주 : 참여연대사법감시)

회원가입 : 전화 02-723-0666(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발송비 절감 등을 위해 변호사와 법학자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에서 근무하는 분들께도
사법감시를 전자우편으로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자우편 발송신청 jwc@pspd.org

2005
新刊

國內 第一의 民法 KOMMENTAR!!

編輯代表 : 郭潤直 編輯委員 : 孫智烈 · 金滉植 · 梁彰洙



民法注解 (XVII) · (XVIII) · (XIX)

民法 전체를 條文順序에 따라
종합적 · 체계적으로 서술하며
각 條文마다 중요한 判決들을
引用해 判例理論을 밝힌 코멘
타르이다.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

民法注解(XVII)(채권 10) 734조~749조
民法注解(XVIII)(채권 11) 750조~757조
民法注解(XIX)(채권 12) 758조~766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3-31번지. 전화: 02-733-6771~3

圖書出版 博英社